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

- 일시: 2022년 12월 17일(토) 오후 2시 - 6시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ZOOM)
- 주최: 한국종교학회
- 주관: 한국종교학회

2022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진행안내

- 주제 :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
- 진행 : 온라인 학술대회 (Zoom)
- 회의 ID: 865 1128 9572 암호: Whdry1217
- 주 최 : 한국종교학회 / 일시 : 12월 17일(토) 14:00 ~ 18:00

진행 일정

1부 14:00-16:30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 사회자 : 성해영(서울대)
	종교문화콘텐츠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 발표자 : 신광철(한신대) 토론자: 김진형(경남연구원)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 발표자 : 이재수(동국대) 토론자: 원영상(원광대)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발표자 : 박종천(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토론자: 송현주(순천향대)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발표자 : 송현동(건양대) 토론자: 허남진(원광대)
	종합 토론 사회자: 김윤성(한신대)
2부 16:40-17:40	종교학 분야 K-학술확산연구소 성과 공유 사회자: 조현범(한국학중앙연구원)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성과 발표 :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
	서강대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성과 발표 : 정소이 서강대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2부 총평 총평자 : 신광철(한신대)
3부 17:40-18:00	한 국 종 교 학 회 총 회

韓國宗敎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Studies

2022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

- 주제: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
- 일시: 2022년 12월 17일(토)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 (ZOOM)
- 주최: 한국종교학회
- 주관: 한국종교학회

프로그램 안내 (온라인 학술대회)

일 시	발 표 및 내 용
<p>1부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 14:00 - 16:30 사회 : 성해영(서울대)</p>	<p>◆ 종교문화콘텐츠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 발표자 : 신광철 (한신대) 토론자 : 김진형 (경남연구원)</p>
	<p>◆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 발표자 : 이재수 (동국대) 토론자 : 원영상 (원광대)</p>
	<p>◆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발표자 :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토론자 : 송현주 (순천향대)</p>
	<p>◆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발표자 : 송현동 (건양대) 토론자 : 허남진 (원광대)</p>
	<p>◆ 질의응답 발표자 : 김윤성 (한신대)</p>
<p>2부 종교학 분야 K-학술확산연구소 성과 공유 16:40 - 17:40 사회 : 조현범(한국학중앙연구원)</p>	<p>◆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발표자 :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p>
	<p>◆ 서강대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발표자 : 정소이 서강대 K종교학술확산연구소</p>
	<p>◆ 2부 총평 신광철 (한신대)</p>
<p>3부 총회 17:40 - 18:00</p>	<p>◆ 한국종교학회 총회</p>

<목 차>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	1
[논평]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	17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	18
[논평]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	46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48
[논평]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66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71
[논평]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82

종교문화콘텐츠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

신광철(한신대학교)

I. 서론

한국 학계에서 ‘문화콘텐츠학’의 지점은 매우 독특한 구석이 있다. 첫째, 산업과 정책의 요청이 학문으로서의 문화콘텐츠학의 출현을 추동하였다는 점이다. 20세기 말 21세기 초 문명적 전환의 과정에서 ‘문화의 산업화’ 및 ‘문화의 콘텐츠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났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¹⁾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초기에 강조되었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문화원형’이었다. 문학, 철학, 사학, 민속학, 인류학, 종교학 등 인문학자들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였던 ‘우리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학과로서의 문화콘텐츠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뜻을 모으게 되었다.²⁾ 둘째, 학회와 학과의 설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02년 인문콘텐츠학회가 설립되었으며,³⁾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대학원과 학부 학과가 개설되었다.⁴⁾ 셋째, 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등 인문학자들의 응용인문학으로의 전환 혹은 투신이 한국 문화콘텐츠학 시작의 주요한 배경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학·기술 기반의 디지털콘텐츠학과 인문학 기반의 문화콘텐츠학의 변별점을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⁵⁾

문화콘텐츠학은 이처럼 문화산업 내지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산업적·정책적 수요

1) 국가적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대표하는 현상이 ‘한국콘텐츠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0년 문화관광부 산하 기구인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확대 발전시켜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2009년에 기존에 설립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문화원형 논의를 처음부터 주도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의도는 ‘우리 문화원형’을 발굴, 디지털콘텐츠로 만들어 21세기 문화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적 효용의 가치를 끌어내는 데에 있었다. (인문콘텐츠학회·가톨릭대 산학협력단·애니메이션제작자협의회,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p.29.)

3) 2002년 10월 25일 건국대학교 종합강의동 멀티미디어실에서 “왜 인문콘텐츠인가?”를 주제로 인문콘텐츠학회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 날 심포지움에서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김기덕), 「인문콘텐츠와 인문정책의 방향」(박경하), 「인문학과 지식정보화」(고려대), 「검안이 보여주는 범죄현장들, 그 생생한 역사의 이야기」(김호), 「인문콘텐츠 제작사례: 경기도 문화유산 가상현실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강진갑), 「출판콘텐츠 개발과 인문학자의 역할」(강웅천)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4) 2002년 한국의국어대 대학원에 문화콘텐츠학과(현,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었으며, 2003년 한신대 문화정보학부에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현,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었다. 대학원 학과 개설이 학부 학과 개설에 선행된 점은 문화콘텐츠학의 독특한 위상을 보여준다.

5) 신광철, 「인문학 제분과의 문화콘텐츠론」, 『문화콘텐츠학입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

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출범하였다. 이 대응은 20세기 말 21세기 초 문명적 전환이라는 역사적 흐름과 함께 제기된 이른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돌파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러한 돌파 과정에서 국문학, (한)국사학, 철학, 민속학, 종교학 영역에서의 문화콘텐츠 담론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초기에 이루어진 인문학 각 영역에서의 문화콘텐츠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⁶⁾ 문화콘텐츠학 연구사 정리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으며,⁷⁾ 최근 인문콘텐츠학회 20주년에 즈음하여 문학, 사학, 철학 영역을 중심으로 1세대 인문콘텐츠학자들의 인문콘텐츠론이 갖는 함의와 영향을 논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일련의 정리 작업을 거치면서 문학이나 사학에서의 문화콘텐츠론에 비해 종교학의 그것이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풍성하지 못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학과 및 방법으로서의 ‘역사콘텐츠’에 대한 논의의 진전에 비해 종교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실정을 돌파하고 논의를 자극하기 위해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이라는 학술적 과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종교학회 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 주제 발표 논문으로 구상되었다.⁹⁾ I장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종교문화콘텐츠학의 현재 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리 작업은 학과로서의 종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 체계와 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III장에서는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수렴하고 종교문화콘텐츠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과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IV장에서는 저간의 논의를 갈무리하는 한편, 향후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방법론(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후속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II.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의 성과

종교문화콘텐츠학은 아직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종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문화콘텐츠학의 관점 및 범위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불교문화콘텐츠·기독교 문화콘텐츠 등 전통별 문화콘텐츠는 정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들 연구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어서 별도의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각 종교전통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른바 ‘종교문화콘텐츠 일반’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정리 대상으로

6) 신광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

7) 신광철, 「문화콘텐츠학 연구사 정리의 방향과 과제」,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8) 신광철, 「인문학에서 인문콘텐츠학으로의 확장: 문화콘텐츠학 1세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4, 인문콘텐츠학회, 2022.

9) 금번 학술대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성과공유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교육 방법론의 총론격에 해당하는 「종교문화콘텐츠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신광철), 각론격의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이재수), 그리고 종교문화콘텐츠학의 세부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박종천),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송현동) 등 4편의 논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 종교학 분야 K-학술확산연구소(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 서강대 K종교학술확산연구소)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로 삼는다.

하나의 세부 학문이 스스로의 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학회·연구소에서의 담론 개진, 전문 연구자군의 형성, 구체적인 정책 연구의 실행, 관련 학위자의 배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학회에서의 논의, 전문 연구자의 연구 성과, 정책 연구의 성과, 학위논문의 순으로 저간의 성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학회·연구소 차원에서 응용인문학으로서의 종교학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 초기 사례로는 『종교문화연구』 4호(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2)의 특집 “종교학과 문화비평”, 『종교연구』 44집(한국종교학회, 2006)의 특집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한국종교사학회·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학술발표회 “한국 종교문화의 콘텐츠화 방향”(2008년 11월 29일, 브레탕백회점 종교문화센터)가 있었다.

특집 “종교학과 문화비평”에는 총론 격의 「고양이의 꿈 - 종교학과 문화비평」(박규태)과 각론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신광철)과 「종교와 광고」(이창익) 등 총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박규태는 「고양이의 꿈 - 종교학과 문화비평」 세번째 장 “종교학으로부터 문화비평으로의 회랑”에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형이상학적 반란, 문화비평으로서의 종교학,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 등 종교학이라는 학문의 확장성을 논한 뒤, 네번째 장 “고양이의 꿈”에서 ‘종교학과 문화비평’의 방법(혹은 시각)으로 ‘두껍게 읽기’와 ‘다르게 읽기’의 길을 제안하였다.¹⁰⁾ ‘문화비평으로서의 종교학’의 관점은 앞서 1990년 장석만에 의해 선구적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¹¹⁾

한국종교학회는 2006년 전반기 학술대회의 주제를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로 정하여 학술대회(2006년 6월 9일, 한국학중앙연구원)를 개최하였으며, 기획 논문을 학회지 『종교연구』의 특집으로 실었다. 특집 “종교학과 문화콘텐츠”에는 「문화콘텐츠와 종교학」(신광철), 「일본의 문화콘텐츠와 종교 - 미야자키 하야오를 중심으로」(박규태), 「문화콘텐츠와 한국학」(송현동) 등 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신광철의 「문화콘텐츠와 종교학」은 종교와 문화콘텐츠의 가능한 연결 지점, 나아가 종교학과 문화콘텐츠학의 접점을 모색한 선행 연구 「종교학과 문화콘텐츠」와 연장 선상에서 이루어진 논의이다. 신광철은 「종교학과 문화콘텐츠」에서 문화의 원천으로서의 종교의 위상을 설정하고 디지털문명의 종교적 구조를 성찰함으로써 이론적 맥락에서의 종교학과 문화콘텐츠의 연결 지점을 모색하는 한편, 종교 지식정보화의 추구, 디지털 포교와 콘텐츠, ‘정보의 지식화’를 통한 종교콘텐츠의 재구축,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콘텐츠 클러스터로서의 종교 문화 벨트를 중심으로 실천적 맥락에서의 주제 연구를 실시하였다.¹²⁾ 「문화콘텐츠와 종교학」에서는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종교의 위상을 설정하고, 종교지식정보화 및 데이터

10) 박규태, 「고양이의 꿈 - 종교학과 문화비평」, 『종교문화연구』 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2, pp.8-14.

11) 장석만, 「문화비평으로서의 종교학」, 『한국종교연구회회보』 2, 1990. ‘종교학과 문화비평’에 대한 연구사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비평 - 한국에서의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2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김운성, 「종교학과 문화비평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전망」, 『종교문화연구』 33,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9.

12)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한신인문학연구』 5,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4.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는 한신인문학연구 5호(한신인문학연구소, 2004)의 특집의 한 편으로 게재된 것이다. 특집 “인문학과 문화콘텐츠”는 문학과 문화콘텐츠(최혜실), 역사학과 문화콘텐츠(임영상), 철학과 문화콘텐츠(장영란), 기호학과 문화콘텐츠(송치만), 종교학과 문화콘텐츠(신광철) 등 5편이 실렸다.

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한편, 종교의례와 다양한 콘텐츠 특정 장르의 결합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등, 종교문화콘텐츠학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¹³⁾

학술발표회 “한국 종교문화의 콘텐츠화 방향”에서는 기조강연 3편, 주제발표 10편 등, 총 1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종교문화콘텐츠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는 「한국종교계 홈페이지 운영의 현황과 과제」(김방룡), 「한국문화 콘텐츠화의 현단계와 과제」(이남희), 「한국 종교영화의 현황과 전망」(신광철), 「한국 전통민속축제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송화섭),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이벤트」(박승길) 등이 있다.

한편, 한국신종교학회는 “신종교와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열고 그 성과를 신종교연구 37집(2017년), 38집, 39집(이상 2018년) 기획논문으로 갈무리하였다.¹⁴⁾ 이 중에서 37집에 게재된 「신종교와 문화콘텐츠 - 현황과 전망」(신광철)과 「한국 신종교의 문화관광콘텐츠 잠재성 연구」(송현동)는 총론 격에 속하는 것이다.

특집 “종교학과 문화비평”을 주도한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는 종교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종교문화콘텐츠학의 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있다.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의 종교문화콘텐츠 관련 주제는 “종교학적 상상력과 영화 : 역사·기억·현실”(『종교문화연구』 5, 2003),¹⁵⁾ “종교, 일상, 대중문화”(『종교문화연구』 15, 2010),¹⁶⁾ “종교, 구체성의 문화”(『종교문화연구』 17, 2011),¹⁷⁾ “신화와 콘텐츠”(『종교문화연구』 26, 2016),¹⁸⁾ “한국영화 속의 종교적 재현”(『종교문화연구』 27, 2016),¹⁹⁾ “종교와 관광”(『종교문화연구』 28, 2017),²⁰⁾ “영화 속의 붓다와 공자”(『종교문화연구』 27, 2016),²¹⁾ “성지, 순례, 문화”(『종교문화연구』 32, 2019)²²⁾ 등 다양한 주제 및 장르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종교문화콘텐츠학의 관점 형성 및 영역 확장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한신

13) 신광철, 「문화콘텐츠와 종교학」, 『종교연구』 44, 한국종교학회, 2006.

14) 38집에는 「종교문화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종교학적’ 접근 - 진각종의 문화사업을 사례로」(우혜란),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의 문화콘텐츠 현황」(문선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순진리회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전망」(정지윤), 39집에는 「웰빙시대 단군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전망」(박종천), 「동학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신광철), 「일본 신종교의 문화사업과 콘텐츠 - 일본 창가학회(創價學會)의 활동을 중심으로」(제점숙), 「대만 신종교의 문화콘텐츠 고찰 - 자계기금회, 유심성교 그리고 일관도의 문화사업을 중심으로」(쨍쯔밍, 이경원, 이수현)가 게재되었다.

15) 신광철, 「굿의 사회적 치유능력에 대한 현대적 해석 : 영화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와 <그 섬에 가고 싶다>가 꿈꾸는 희망을 중심으로」; 김윤성, 「인공지능과 영혼 : 2001 Space Odyssey에서 A. I.까지」; 박종천, 「연금술적 상상력과 제의적 영화 체험 : 영화 <박하사탕>을 중심으로」.

16) 하홍규, 「실천으로서의 종교」; 김성건, 「종교, 영성 그리고 건강」; 전명수, 「종교와 스포츠의 접점」; 박종천, 「몰입, 종교와 대중문화를 녹이다」.

17) 최화선, 「기억과 감각」; 임현수, 「웃음과 죽음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이창익, 「종교와 미디어 테크놀로지」.

18) 신광철, 「‘신화와 영화’론의 종교학적 재평가」; 심형준, 「‘신화적 역사’와 ‘역사적 신화」」; 박종천, 「<서유기>의 신화적 콘텐츠 변용 양상 연구」.

19) 이나라, 「김기덕의 「피에타」속 기독교적 수난과 파토스 이미지 읽기」; 이창익, 「소문의 종교적 구조 - 영화 <곡성>의 마법 풀기」.

20) 송현동, 「전주한옥마을과 종교」; 송봉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와 관광의 시사점」.

21) 신광철, 「붓다영화 <석가모니>에 관한 연구」; 위군, 「중국 영화에 나타난 공자 이미지의 변화와 특징」.

22) 이창익, 「땅이 있는 종교와 땅이 없는 종교 - 한국 신종교의 ‘종교적인 공간 만들기’에 대한 연구」; 송현동, 「성지순례의 관광사적 의미 고찰」;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 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 종교와문화연구소와 『종교문화연구』의 학술 활동이 2019년 『종교문화연구』 32호 발간을 끝으로 중단된 점은 종교문화콘텐츠학의 장도(壯途)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다.

종교문화콘텐츠 일반 관련 개별 연구자로는 김진형, 박종천, 송현동, 신광철, 이남희, 이재수 등이 있다. 이들의 종교문화콘텐츠 분야 대표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김진형, 「종교문화콘텐츠의 진단과 대중화 전략」, 『종교문화비평』 34, 종교문화비평학회, 2018.
- 김진형, 「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인문콘텐츠학회, 2021.
- 박종천, 「문화유산에서 문화콘텐츠로 - 유교문화원형의 현황과 활용」,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박종천, 「웰빙시대 단군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9, 한국신종교학회, 2018.
- 송현동, 「장례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과 한계 - 실버산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9, 인문콘텐츠학회 2007.
- 송현동, 「한국 신종교의 문화관광콘텐츠 잠재성 연구」, 『신종교연구』 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 송현동, 「전주한옥마을과 종교 - 종교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8,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7.
-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한신인문학연구』 5,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4.
-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비평 - 한국에서의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2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 신광철, 「단군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2005.
- 신광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
- 신광철, 「문화콘텐츠와 종교학」, 『종교연구』 44, 한국종교학회, 2006.
- 신광철, 「기독교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과 방법」,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 신광철, 「대만 세계종교박물관의 전시 이념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종교문화연구』 2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5.
- 신광철, 「신종교와 문화콘텐츠 -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 신광철, 「동학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9, 2018.
- 신광철, 「문화콘텐츠학과 新실학」,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18.
-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 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9.
- 신광철, 「신화-제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BTS 성지순례 현상」, 『신종교연구』 47, 한국신종교학회 2022.
- 이남희, 「지식정보화사업과 종교문화의 디지털콘텐츠화」, 『원불교사상과 종교

- 문화』 3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 이남희, 「e-문화관광 정보의 현 단계와 전망 - 종교문화관광 콘텐츠화의 필요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 이남희, 「문화원형사업과 공연 문화콘텐츠 - '종교문화' 디지털콘텐츠화와 관련해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9.
- 이재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 기획」, 『전자불전』 8,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5 .
- 이재수,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 이재수, 「한국 종교문화원형 활용 현황과 과제」, 『종교문화연구』 22,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4.

김진형은 ‘판문화’의 가치를 적용하여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을 연구하였으며, 민중의식과 변혁적 가치의 자리에서 문화콘텐츠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등, 민속학의 관점에서 실천적 연구를 실행해 왔다.²³⁾ 김진형의 종교문화콘텐츠 연구 역시 가치 연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각을 공유한다. ‘종교와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²⁴⁾를 꾸준히 시행해 온 박종천의 종교문화콘텐츠 연구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종교문화의 결을 잘 살려내고 있다. 송현동은 실버산업의 관점에서 장례문화 콘텐츠를 연구하는 한편, 관광 및 투어리즘의 시각에서 종교문화 자원의 잠재성을 천착하고 있다.

신광철은 종교문화콘텐츠학의 이론 및 교육의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신광철은 문화콘텐츠학의 정체성을 ‘표현’을 넘어 ‘창출’을 지향하는 신(新)실학의 지점에서 포착하는 한편, 대중문화 콘텐츠 영역에서의 ‘성지순례’ 개념 확장 등의 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 현상의 구조에 대한 종교학적 재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광철은 또한 단군·동학 콘텐츠 및 신종교 문화콘텐츠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실시한 바 있다.

지식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실제적 경험을 지닌 이남희는 종교 지식정보화에 대한 일련의 실천적 성과를 제시하여 이 분야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종교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²⁵⁾을 발표한 이재수는 전자불전 프로젝트 경험을 토대로 종교문화콘텐츠 및 종교문화원형 관련 실천적 연구 성과를 다수 제시하고 있다.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종교문화원형 관련 연구가 주목된다.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있어 원천이 되는 이야기 자료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문화산업이 ‘이야기산업’으로 불리며 이야기 자료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맥락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²⁶⁾ 이러한 이야기 원천 자료 확보 과정에서 문화의 원형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

23) 김진형,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과 판문화의 가치 적용」, 『민속연구』 2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4.; 김진형, 『문화콘텐츠와 멀티유즈 전략 -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념과 전략적 활용론』, 민속원, 2015.; 김진형, 「문화콘텐츠의 인식범위 확장 및 생산·소비 메커니즘 진단」, 『인문콘텐츠』 42, 인문콘텐츠학회, 2016.; 김진형, 「문화콘텐츠의 민중의식과 변혁적 가치로의 실천방향」, 『글로벌문화콘텐츠』 31,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7.; 김진형, 『문화 콘텐츠의 비판적 인식 - 디지털송배와 상업주의에 빠진 문화산업계』, 그들에게 던지는 대담한 메시지, 북코리아, 2018.

24) 박종천,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 - 종교와 영화의 세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25) 이재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불교학과). 2007.

폭되고 있으며,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수행된 종교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연구는 이야기 원천으로서 종교문화원형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교문화콘텐츠 관련 정책 연구의 발주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수행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종교문화연구소(연구책임자: 신광철)였다. 3편의 정책연구(이하 ‘종교문화원형 프로젝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무도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0.

‘종교문화원형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종교문화원형 개념 및 범주 연구 → 종교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사례 조사 연구 → 종교문화원형 활용 킬러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및 모델 제시라는 일련의 논리적·단계적 연구의 흐름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이론 및 실천적 맥락을 구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개념 및 담론의 제시 → 성공사례 조사연구를 통한 현황 점검 및 벤치마킹 지점 확보 →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개발 방향 및 방법 제시의 흐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 일반과 관련된 모델을 제시해 주었으며, 문화콘텐츠 이론-실천 체계로서의 종교문화원형학 내지는 종교문화콘텐츠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교문화콘텐츠 일반 영역의 학위논문은 2편에 불과한 실정이다.²⁷⁾ 이는 종교문화콘텐츠학이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금번 2022년 하반기 한국종교학회의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 주제 토론이 이 분야의 확산과 정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III.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과정 모색

종교문화콘텐츠학 일반과 관련한 콘텐츠 교육론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다만,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의 『종교문화연구』 20호를 통해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기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²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각론을 수렴하여 종교문화콘텐츠학 일반에 대한 총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재수는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체계와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불교문화콘텐츠의 특징을

26) 이야기산업이란 이야기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창작-유통-소비라는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정민 외, 『이야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10., p.9.)

27) 김보람, 「종교문화원형 활용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 - 선무도를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2010.; 주희현, 「종교시설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 종교단체 문화예술콘텐츠네트워크 사례 경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문화예술경영학과), 2018.

28) 이재수,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신광철, 「기독교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과 방법」,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논하였다. 이재수는 불교문화콘텐츠의 향유 주체와 가치체계를 종교성, 공공성, 대중성의 3각구조로 설명하였다. 이재수는 종교성, 공공성, 대중성의 가치를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목표 설정에도 적용하였다. 이재수는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인재상을 포교인력 양성이나 문화경영전문가 발굴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문화전문기획가, 스토리텔러, 문화콘텐츠 매니저, 문화 크리에이터 등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으로 제시하였다.

이재수는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위상을 응용불교학의 한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재수는 신광철이 학부 문화콘텐츠 교육론²⁹⁾에서 제시한 기획(창출), 개발(제작), 시장(유통, 관리), 문화기획 등 4개 분야를 참조하여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육과목을 제안하였다.³⁰⁾

신광철은 기독교문화콘텐츠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내적 맥락을 한국교회 현장에서 확산되는 기독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기독교문화 향유의 새로운 흐름)에서, 외적 맥락을 디지털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요청으로부터 찾는 한편, 그러한 맥락 고찰을 경유해서 기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신광철은 기독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수요 분석 및 장르 관련 주제 분석 작업을 통해 기독교문화콘텐츠학의 주제를 예배에서의 문화콘텐츠(영화, 연극, 드라마) 활용, 목회 및 선교 분야에서의 문화콘텐츠 활용, 축제 및 전시회, 공연, 음악, 무용 분야에서 기독교문화콘텐츠 확장(뮤지컬, CCM, CCD 등), 기독교문화콘텐츠 관련 인프라 및 시스템, 출판, 영상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문화운동, 문화비즈니스 등의 주제를 설정하였다. 신광철은 또한 전통적 교학(신학), 즉 순수(기초)기독교학과 응용(실용)기독교학으로서의 기독교문화콘텐츠학의 복수전공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신광철은 기독교문화콘텐츠학의 커리큘럼 설계를 위한 기준 영역을 기독교문화학, 기독교문화콘텐츠 장르, 기독교문화콘텐츠 기획제작, 기독교문화콘텐츠경영 등으로 설정하였다. 신광철은 기독교문화학 영역의 주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문화 이론(관점), 성서기독교사와 문화콘텐츠(토대), 교회와 문화콘텐츠(실천)의 세부 주제와 역할론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기독교문화콘텐츠학 커리큘럼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정규 학기 교과목과 함께 탐사 중심의 계절학기 교과목도 제시하였다.³¹⁾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기존 연구의 성과를 수렴하고 문화콘텐츠 연구의 성과를 반영하여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과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 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논하여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인문학으로서의 종교(문화)학과 응용인문학으로서의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복수전공 시스템(One+One System), 순수인문학으로서의 종교(문화)학 + 마이크로전공, 종교문화콘텐츠학 단수전공 시스템의 세 가지 모델을 고려하고자 한다.

복수전공 시스템은 순수 종교(문화)학 영역으로부터 문화콘텐츠 기획의 중요 동력을 이루는 종교문화원형이라는 제재(題材)와 종교문화적 상상력을 제공받는 한편, 응용학인 종교문화콘텐츠학으로부터 문화콘텐츠 실무 능력의 기반이 되는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

29) 신광철, 「학부 수준에서의 문화콘텐츠학과 교과과정의 분석과 전망」, 『인문콘텐츠』 2, 인문콘텐츠학회, 2003.

30) 이재수,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pp.268-269 <표 6>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육과목(안) 참조.

31) 신광철, 「기독교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과 방법」,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pp.236-237 <표 3> 기독교문화콘텐츠학 커리큘럼 모델 참조.

오르고 있는 인문학 부재 내지는 인문학 위기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수전공의 경우 제1전공 36학점 + 제2전공 36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종교(문화)학(36학점) + 종교문화콘텐츠학(36학점)의 기본적인 복수전공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변용하여 심화전공 + 복수전공 시스템, 즉 종교(문화)학(54학점) + 종교문화콘텐츠학(36학점) 또는 종교(문화)학(36학점) + 종교문화콘텐츠학(54학점)의 시스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마다 교무행정 등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복수전공 시스템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는, 일종의 마이크로 전공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이크로전공의 정체성이 향후 도입할 종교문화콘텐츠학의 특성을 일정 정도 예비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전공의 예시로는 신화콘텐츠, 종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종교관광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마다 마이크로전공 이수 학점에 차이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수전공의 1/3에 해당하는 12학점으로 제시해 본다. 이상에서 서술한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단수전공 시스템	복수전공 시스템	마이크로전공 시스템
종교문화콘텐츠학 (54학점)	종교(문화)학(36학점) + 종교문화콘텐츠학(36학점)	종교(문화)학(36학점) + 마이크로전공(12학점) * 예시: 신화콘텐츠 종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종교관광 등

<표 4>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단수전공으로서의 종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단수전공으로서의 종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문화콘텐츠학의 핵심 영역을 종교문화 이론, 종교사와 세계종교문화콘텐츠, 신화콘텐츠, 종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종교문화콘텐츠 장르, 종교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종교관광/탐사, 종교문화산업 및 정책 등 8개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다음과 같이 과목들을 배치하였다.

- 제1영역 : 종교문화 이론
 - 종교문화학 개론 (1학년 1학기)
 - 종교문화콘텐츠학 입문 (1학년 2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인프라 리서치 (1학년 1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트렌드 리서치 (1학년 2학기)
 - 종교학과 문화비평 (2학년 1학기)

- 제2영역 : 종교사와 세계종교문화콘텐츠
 - 세계종교문화기행 (1학년 2학기)
 - 종교사와 문화콘텐츠 (2학년 1학기)

- 세계종교전통과 문화콘텐츠 1 (2학년 1학기)
- 세계종교전통과 문화콘텐츠 2 (2학년 2학기)
- 종교음악과 콘텐츠 (3학년 1학기)
- 종교미술과 콘텐츠 (3학년 2학기)
- 종교건축과 콘텐츠 (3학년 2학기)

○ 제3영역 : 신화콘텐츠

- 신화학 입문 (2학년 1학기)
- 한국신화의 이해 (2학년 1학기)
- 세계신화의 이해 (2학년 2학기)
- 신화 콘텐츠 분석의 이론과 실제 (3학년 1학기)
- 신화 활용 콘텐츠 기획 실습 (3학년 2학기)
- 신화 활용 콘텐츠 제작 실습 (4학년 1학기)

○ 제4영역 : 종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 종교와 언론 매체 (2학년 1학기)
- 종교 방송론 (2학년 2학기)
- 종교와 뉴 미디어 (3학년 2학기)
- 종교 신문 기사 작성 실습 (3학년 1학기)
- 종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실습 (3학년 2학기)

○ 제5영역 : 종교문화콘텐츠 장르

- 종교와 대중음악 (3학년 1학기)
- 종교영화론 (3학년 1학기)
- 종교다큐멘터리론 (3학년 2학기)
- 종교와 공연예술 (3학년 2학기)

○ 제6영역 : 종교문화콘텐츠 기획/제작 영역

- 종교문화콘텐츠 분석의 이론과 실제 (2학년 1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1 (2학년 2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2 (3학년 1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기획의 이론과 실제 (2학년 2학기)
- 종교문화 숏폼 콘텐츠 제작 실습 (3학년 2학기)
- 종교영화 제작 실습 (3학년 2학기)
- 종교다큐멘터리 제작 실습 (4학년 1학기)
- 종교문화 웹 콘텐츠 제작 실습 (4학년 1학기)
-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기획 실습 (3학년 1학기)
- 종교박물관 전시 기획 실습 (4학년 1학기)
- 종교문화 테마파크 콘텐츠 기획 실습 (4학년 2학기)

- 제7영역 : 종교관광/탐사 영역
-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현장학습 1 (2학년 1학기)
-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현장학습 2 (2학년 2학기)
- 성지순례 현상 탐구 (3학년 1학기)
- 종교문화 테마투어 프로그램 분석 (3학년 1학기)
- 종교문화 테마투어 프로그램 기획 (3학년 2학기)
- 종교문화 테마파크 현장학습 (계절학기)
- 종교박물관 탐사 (계절학기)
- 한국종교 문화유산 탐사 (계절학기)
- 세계종교 문화유산 탐사 (계절학기)

- 제8영역 : 종교문화산업 및 정책 영역
- 종교와 문화산업 (1학년 1학기)
- 종교문화 마케팅 원론 (3학년 1학기)
- 종교문화 비즈니스 실무 (3학년 2학기)
- 종교문화와 사회적 기업 (4학년 1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기업 창업론 (4학년 2학기)
- 종교문화콘텐츠 기업 인턴십 (4학년 2학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1학기	2학기
1학년	종교문화학 개론(전공필수) 종교와 문화산업 종교문화콘텐츠 인프라 리서치	종교문화콘텐츠학입문(전공필수) 세계종교문화기행 종교문화콘텐츠 트렌드 리서치
2학년	종교학과 문화비평 종교사와 문화콘텐츠 세계종교전통과 문화콘텐츠 1 신화학 입문 한국신화의 이해 종교와 언론 매체 종교문화콘텐츠 분석의 이론과 실제(전공필수)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현장학습 1	세계종교전통과 문화콘텐츠 2 종교미술과 콘텐츠 종교건축과 콘텐츠 세계신화의 이해 종교 방송론 종교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1 종교문화콘텐츠 기획의 이론과 실제(전공필수)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현장학습 2
3학년	종교음악과 콘텐츠 신화 콘텐츠 분석의 이론과 실제 종교 신문 기사 작성 실습 종교와 대중음악 종교영화론 종교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2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기획 실습 성지순례 현상 탐구 종교문화 테마투어 프로그램 분석 종교문화 마케팅 원론	신화 활용 콘텐츠 기획 실습 신화 활용 콘텐츠 제작 실습 종교와 뉴미디어 종교다큐멘터리론 종교와 공연예술 종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실습 종교영화 제작 실습 종교문화 숏폼 콘텐츠 제작 실습 종교문화 테마투어 프로그램 기획 종교문화 비즈니스 실무
4학년	종교다큐멘터리 제작 실습 종교문화 웹 콘텐츠 제작 실습 종교박물관 전시 기획 실습 종교문화와 사회적 기업	종교문화 테마파크 콘텐츠 기획 실습 종교문화콘텐츠 기업 창업론 종교문화콘텐츠 기업 인턴십 졸업작품
계절학기	종교문화 테마파크 현장학습 종교박물관 탐사 한국종교 문화유산 탐사 세계종교 문화유산 탐사	

<표 5> 종교문화콘텐츠학-단수전공 커리큘럼 모델

IV. 결론 및 전망

이상에서 종교문화콘텐츠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의 종교문화콘텐츠(학) 교육론을 수렴하여 종교문화콘텐츠학 단수전공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복수전공형 및 마이크로전공형 커리큘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전공의 경우 단수전공에 비해 이수 학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커리큘럼 압축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복수전공 커리큘럼을 제안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복수전공 커리큘럼의 경우 종교(문화)학과의 중복을 피하고, 제작 과목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을 취했으며, 졸업논문과 졸업작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	2학기
1학년	종교와 문화산업(전공필수) 종교문화콘텐츠 인프라 리서치	종교문화콘텐츠학입문(전공필수)
2학년	신화학 입문 한국신화의 이해 종교와 언론 매체 종교문화콘텐츠 분석의 이론과 실제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현장학습 1	세계신화의 이해 종교 방송론 종교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1 종교문화콘텐츠 기획의 이론과 실제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현장학습 2
3학년	신화 콘텐츠 분석의 이론과 실제 종교 신문 기사 작성 실습 종교영화론 종교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2 종교문화 축제/이벤트 기획 실습 종교문화 테마투어 프로그램 분석 종교문화 마케팅 원론	신화 활용 콘텐츠 기획 실습 신화 활용 콘텐츠 제작 실습 종교와 공연예술 종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실습 종교영화 제작 실습 종교문화 테마투어 프로그램 기획 종교문화 비즈니스 실무
4학년	종교문화 웹 콘텐츠 제작 실습 종교박물관 전시 기획 실습 종교문화와 사회적 기업	종교문화콘텐츠 기업 창업론 종교문화콘텐츠 기업 인턴십 졸업작품
계절학기	종교문화 테마파크 현장학습 종교박물관 탐사 한국종교 문화유산 탐사 세계종교 문화유산 탐사	

<표 6> 종교문화콘텐츠학-복수전공 커리큘럼 모델

마이크로 전공의 경우, 종교문화콘텐츠학입문 + 마이크로 교과목 체제를 적용하여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마이크로 전공형 교과목은 앞서 제시한 제3영역(신화콘텐츠), 제4영역(종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제7영역(종교관광/탐사)의 교과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마이크로 전공형의 학점 이수 모델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신화콘텐츠 전공	종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종교관광 전공
종교문화콘텐츠학(3학점)	종교문화콘텐츠학(3학점)	종교문화콘텐츠학(3학점)
+	+	+
마이크로 교과목(9학점)	마이크로 교과목(9학점)	마이크로 교과목(9학점)

<표 7> 마이크로전공형의 학점이수 체계

지금까지 종교문화콘텐츠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단수형 및 복수형 종교문화콘텐츠 학 교육의 체계와 과정, 그리고 마이크로 전공형의 체계와 과정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의 논의는 커리큘럼론에 집중되어 있다. 학과 교육에 있어 커리큘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육의 방법론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작업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표를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진형, 『문화콘텐츠와 멀티유즈 전략 -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념과 전략적 활용론』, 민속원, 2015.

- 김진형, 『문화 콘텐츠의 비판적 인식 - 디지털송배와 상업주의에 빠진 문화산업계』, 그들에게 던지는 대담한 메시지, 북코리아, 2018.
- 박종천,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 - 종교와 영화의 세계』,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 신광철, 『문화콘텐츠학입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9.

○ 논문

- 김보람, 「종교문화원형 활용콘텐츠 기획에 관한 연구 - 선무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2010.
- 김진형, 「문화콘텐츠의 육성기반과 판문화의 가치 적용」, 『민속연구』 2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4.
- 김진형, 「문화콘텐츠의 인식범위 확장과 생산·소비 메커니즘 진단」, 『인문콘텐츠』 42, 인문콘텐츠학회 2016.
- 김진형, 「문화콘텐츠의 민중의식과 변혁적 가치로의 실천방향」, 『글로벌문화콘텐츠』 31,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 김진형, 「종교문화콘텐츠의 진단과 대중화 전략」, 『종교문화비평』 34, 종교문화비평학회, 2018.
- 김진형, 「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인문콘텐츠학회, 2021.
- 김윤성, 「종교학과 문화비평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전망」, 『종교문화연구』 33,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9.
- 박규태, 「고양이의 꿈 - 종교학과 문화비평」, 『종교문화연구』 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2.
- 박규태, 「일본의 문화콘텐츠와 종교: 미야자키 하야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44, 한국종교학회, 2006.
- 박종천, 「문화유산에서 문화콘텐츠로 - 유교문화원형의 현황과 활용」,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
- 박종천, 「웰빙시대 단군 문화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9, 한국신종교학회, 2018.
- 송현동, 「문화콘텐츠와 한국학」, 『종교연구』 44, 한국종교학회, 2006.
- 송현동, 「장례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과 한계 - 실버산업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9, 인문콘텐츠학회 2007.
- 송현동, 「한국 신종교의 문화관광콘텐츠 잠재성 연구」, 『신종교연구』 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 송현동, 「전주한옥마을과 종교 - 종교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8,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7.
- 신광철,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 『종교문화연구』 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2.
- 신광철, 「학부 수준에서의 문화콘텐츠학과 교과과정의 분석과 전망」, 『인문콘텐츠』 2, 인문콘텐츠학회, 2003.

-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콘텐츠」, 『한신인문학연구』 5, 한신대학교 한신인문학연구소, 2004.
-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비평 - 한국에서의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2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 신광철, 「단군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단군학연구』 12, 단군학회, 2005.
- 신광철, 「종교학과 문화비평 - 한국에서의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29,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5.
- 신광철,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006.
- 신광철, 「문화콘텐츠와 종교학」, 『종교연구』 44, 한국종교학회, 2006.
- 신광철, 「기독교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과 방법」,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 신광철, 「대만 세계종교박물관의 전시 이념 및 체계에 대한 연구」, 『종교문화연구』 2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5.
- 신광철, 「문화콘텐츠학 연구사 정리의 방향과 과제」,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2015.
- 신광철, 「신종교와 문화콘텐츠 -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 신광철, 「동학 콘텐츠의 현황과 전망」, 『신종교연구』 39, 2018.
- 신광철, 「문화콘텐츠학과 新실학」, 『한국실학연구』 36, 한국실학학회, 2018.
-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 - 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9.
- 신광철, 「신화-제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BTS 성지순례 현상」, 『신종교연구』 47, 한국신종교학회 2022.
- 신광철, 「인문학에서 인문콘텐츠학으로의 확장: 문화콘텐츠학 1세대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4, 인문콘텐츠학회, 2022.
- 이남희, 「지식정보화사업과 종교문화의 디지털콘텐츠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6.
- 이남희, 「e-문화관광 정보의 현 단계와 전망 - 종교문화관광 콘텐츠화의 필요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 이남희, 「문화원형사업과 공연 문화콘텐츠 - '종교문화' 디지털콘텐츠화와 관련해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9.
- 이재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 기획」, 『전자불전』 8,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2005 .
- 이재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불교학과). 2007.
- 이재수,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3.
- 이재수, 「한국 종교문화원형 활용 현황과 과제」, 『종교문화연구』 22,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4.
- 이창익, 「종교와 광고」, 『종교문화연구』 4,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02.
- 장석만, 「문화비평으로서의 종교학」, 『한국종교연구회회보』 2, 1990.

주희현, 「종교시설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 종교단체 문화예술콘텐츠네트워크 사례 경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화예술경영학과), 2018.

○ 보고서

고정민 외, 『이야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인문콘텐츠학회·가톨릭대 산학협력단·애니메이션제작자협의회,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원형 발굴 및 활용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8.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종교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성공사례 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0.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무도 문화원형 활용 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0.

「종교문화콘텐츠 연구/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토론문

김진형(경남연구원)

본 글의 핵심은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성과 정리를 토대로 종교문화콘텐츠학 체계 정립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상한 것입니다.

연구자는 논의전개를 위해 학회 및 연구소 성과, 전문연구자군 성과, 정책연구 성과, 학위자 배출성과 등 총 4가지 유형에 따라 종교문화콘텐츠학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검토·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론, 사적 탐구, 신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장르, 기획제작, 관광탐사, 산업 및 정책 등 총 8개 교육영역을 정립시켰습니다. 이렇게 정립된 영역을 활용하여 단수전공 커리큘럼 모델을 구상한 뒤, 그 내용을 변용한 복수전공 커리큘럼 모델과 마이크로전공형 학점이수 체계를 부가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현재 국내 종교문화콘텐츠학 일반에 관한 교육론과 커리큘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 체계적 정립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 본 글의 가장 큰 의의라고 판단합니다. 본 글을 읽으면서 제안할 점 두 가지, 궁금한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할 점입니다.

첫째, 제1영역 : 종교문화 이론에서 ‘종교문화 융합콘텐츠’의 효과적인 개발에 필요한 주요 이론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융합론과 통섭론 같은 이론을 강독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문화콘텐츠 일반의 입장에서 종교문화콘텐츠는 다양한 종단이 상호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단의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융합콘텐츠’ 개발이 필수입니다.

둘째, 제8영역 : 종교문화산업 및 정책영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무행정과 관련 정책을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문화콘텐츠가 민간 차원의 개별 종단에서 개발되는 것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과 각 지자체 종무담당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영역에서는 국내 종무 관련 행정, 정책, 관련 계획, 역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단수전공 커리큘럼 모델을 변용하여 복수전공 커리큘럼 모델과 마이크로 학점이수체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과목 선별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령, 복수전공 과목은 어떠한 기준으로 축소 세팅되었으며, 마이크로 전공형 학점이수 체계를 정립할 때 단수전공 커리큘럼 안에 있는 신화,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관광을 가져왔는데, 그 논거가 궁금합니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

이재수(동국대학교)

목 차

- I. 서 론
- II.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 및 현황
 - 1.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학위 취득 동향
 - 2.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 동향
- III.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체계와 방법
 - 1. 불교학 관련 교육환경과 체계
 - 2.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환경과 체계
 - 3.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방법론
- IV. 결 론

I. 서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새로운 문화 창조의 핵심 원동력은 문화콘텐츠에 있다. 문화의 토대 가운데 불교문화는 과거 전통문화의 산물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화적 공공재이다.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논자는 2013년에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¹⁾ 이 때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의 시발점을 살폈다. 2005년 1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불교사학과를 문화재콘텐츠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문화재콘텐츠학과를 문화재학과로 개편하였으며, 2007년 12월 문화재학과를 불교문화콘텐츠학과로 변경하여 불교예술전공, 사찰음식전공, 다도 생활예절전공을 개설하였다. 2010년 3월 불교문화콘텐츠학과를 차문화콘텐츠학과로 변경해 다도, 제다전공을 개설하였다.²⁾ 불교문화콘텐츠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용규(2004)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불교문화콘텐츠전공 개설 준비를 위해 문화학, 컴퓨터공학기술, 문화콘텐츠제작기술 및 활용기술 등 4가지 분야 전공 교과목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³⁾

1) 이재수(2013),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 이재수(2013), 위의 논문, pp.253-254.

3) 이용규(2004), 「불교문화콘텐츠 전공 교육과정」, 『전자불전』 6,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본 논의는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과정과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002년 한국의국어대 대학원에서 2003년 한신대에서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된 이래로 교육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인문콘텐츠학회의 창립으로 학문적 토대가 성립되었다. 이에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문화콘텐츠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이며, 한류의 영향과 K-콘텐츠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분야를 선도할 인재의 양성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는 시점에서 불교문화콘텐츠학의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과제를 논의하는 부분은 매우 엄중하면서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는 개인의 연구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과거의 전통문화유산으로 불교문화의 가치와 찬란했던 시절만 회상할 수는 없다. 불교문화의 영광은 고즈넉한 산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거리에서 대중들과 만나 교감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문화가 지닌 가치를 문화콘텐츠와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할 때만이 이해하고 소통하여 마음의 평온과 여유를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다.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불교적 가치를 담은 문화콘텐츠가 개발되고 유통되어 향유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는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학계에 요구되어지는 시대적인 사명이므로 이를 위한 고민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 및 현황

1.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학위 취득 동향

2002년 인문콘텐츠학회가 창립되면서 문화콘텐츠학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2003년 신광철의 논의를 통해 문화콘텐츠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고민이⁴⁾ 문화콘텐츠학 관련 교육체제와 확산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논자는 불교문화콘텐츠학이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가? 또는 성립하였는가? 따위의 문제는 본 논의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불교문화콘텐츠학에 대한 논란은 이미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미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엄연하게 실재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계량적으로 문화콘텐츠학 관련 2004년~2020년 학위논문 1,812편을 분석한 오정심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 영역’, ‘문화 영역’, ‘활용 영역’, ‘콘텐츠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영역 사이의 관계는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고 콘텐츠로 제작하는 쪽으로 형성”⁵⁾(200)되었다고 하였다. 주요 연구 영역은 사회와 문화(9.1%), 문화콘텐츠 활용(19%), 문화콘텐츠 제작 기술(8%), 문화콘텐츠 장르(32.2%), 문화콘텐츠 산업(31.6%) 등으로 분포하여,⁶⁾ 문화콘텐츠 장르와 산업 관련이 상당히 높은

4) 신광철(2003), 「학부 수준에서의 문화콘텐츠학과 교과과정의 분석과 전망」, 『인문콘텐츠』 2, 인문콘텐츠학회.

5) 오정심(2021), 「빅데이터 분석 기반 문화콘텐츠 학위논문 연구 동향(2004년~2020년)」, 『문화정책논총』 35-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00.

비중으로 나타났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불교문화콘텐츠를 연구 주제로 삼거나,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대상을 살펴보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키워드 검색에서 불교문화콘텐츠를 검색하여, 불교문화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재구성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⁷⁾

<표 8>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석사학위 현황

No.	저자	주 제	수여사항
1	崔碩原	傳統文化콘텐츠 開發에 關한 研究	광주 : 동신대학교, 2003
2	이형열	포교적 관점에서의 佛敎喪禮의 현대적 運用방안에 關한 研究	서울 : 동국대학교, 2006
3	이돈범	慶州 南山 文化財의 活用方案에 關한 研究 : 불교 文化재를 중심으로	서울 : 동국대학교, 2008
4	김보람	종교문화원형 活用콘텐츠 기획에 關한 研究 : 선무도를 중심으로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0
5	정효림	사찰음식과 文化관광 : 文化콘텐츠 가치의 제고방안 研究	서울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10
6	이찬우	고려사경변상도를 소재로 한 디지털콘텐츠 개발방안: 게임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 상명대학교 文化예술대학원, 2010
7	성광모	전등사 성보문화재의 콘텐츠화 방안연구	익산 : 원광대학교 동양대학원, 2010
8	배금란	한국불교문화 체험의 현대적 양상 研究 : 템플스테이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9	강문정	국내 연등축제 현황 및 불교문화행사 발전방안 研究	서울 : 동국대학교, 2011
10	이종인	곡성 관음사와 연기설화의 文化CONTENTS 活用 研究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11	김혜련	영산재의 대중화 및 세계화 방안에 關한 研究: 영산회상-니르바나-콘텐츠 작업 중심으로	서울 : 동국대학교, 2013
12	이지현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사찰박물관 전시기법 研究 :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을 중심으로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3
13	노혜영	웹툰 <신과 함께>에 나타난 희극성에 關한 研究 : 저승편을 중심으로	서울 :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4
14	박병무	대원사 불교문화유산의 콘텐츠 活用방안에 對한 研究	익산 : 원광대학교, 2015
15	한세인	불교무용 콘텐츠화 研究: 靈山會上 '니르바나' 공연작품 中心으로	서울: 동국대학교, 2015
16	이하영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을 活用한 敎育콘텐츠 개발	부산 : 동의대학교, 2015
17	양진호	시왕 이미지의 현대 콘텐츠 변용연구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18	우승아	화엄경 입법계품의 스토리텔링적 분석	안동 : 안동대학교 대학원, 2016
19	김철우	오대산 월정사 불교문화콘텐츠의 구축방안	경주 : 慶州大學校, 2017
20	전수진	지역문화재 기반 역사문화콘텐츠 구축 및 역사敎育 活用방안	서울: 상명대학교 敎育대학원, 2017
21	Ze, Tingting	티베트 전통 文化를 活用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關한 사례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22	마원	2010년대 『서유기』 각색영화의 스토리텔링 구조분석 및 성공전략에 關한 研究: <서유기: 모험의시작>, <몽키킹: 영웅의귀환>, <몽키킹2: 서유기여정의시작>을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학교, 2017
23	이선영	영산재-영산작법 콘텐츠에 關한 研究 : 2017 니르바나 공연을 중심으로	서울 : 동국대학교, 2018
24	박사금	중국 돈황 막고굴 벽화자원 관광 및 무용창작 콘텐츠 개발방안	서울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2019

6) 오정심(2021), 위의 논문, p.205.

7)

학술연구정보서비스>검색

http://www.riss.kr/search/Search.do?isDetailSearch=N&searchGubun=true&viewYn=OP&queryText=&strQuery=&exQuery=&xQueryText=&order=%2FDESC&onHanja=false&strSort=RANK&p_year1=&p_year2=&iStartCount=0&orderBy=&mat_type=&mat_sub_type=&fulltext_kind=&t_gubun=&learning_type=&cc1_code=&inside_outside=&fric_yn=&image_yn=&gubun=&kdc=&ttsUseYn=&l_sub_code=&fsearchMethod=search&sflag=1&isFDtailSearch=N&pageNumber=1&resultKeyword=&fsearchSort=&fsearchOrder=&limiterList=&limiterListText=&facetList=&facetListText=&fsearchDB=&iccate=bib_t&colName=bib_t&pageScale=100&isTab=Y®nm=&dorg_storage=&language=&language_code=&clickKeyword=&relationKeyword=&query=%EB%B6%88%EA%B5%90%EB%AC%B8%ED%99%94%EC%BD%98%ED%85%90%EC%B8%A0 (2022. 12. 09. 검색)

25	정세훈	수륙재를 통한 불교문화재 콘텐츠 구축 방안 연구	김포 : 중앙승가대학교, 2019
26	왕용근	실담범자(悉曇梵字)의 디지털화를 위한 글자 프레임 모델에 관한 연구: 실담십팔장(悉曇十八章)을 중심으로	양산 :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2019
27	선현정	전남지역 불교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광주 : 전남대학교, 2020
28	박민지	미디어아트 제작의 원천으로서 문화원형: 천수관음도 제작을 중심으로	서울 :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0
29	김진욱	돔 형태의 금강계만다라 시각화 방안 연구	경주 : 위덕대학교 대학원, 2021
30	위혜림	역사 유적지 기반 종교박물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소성 개념을 중심으로	서울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21
31	허필연	의상대사 관련 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양상 연구- 부석사 창사설화를 중심으로-	춘천 :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32	김철수	무애무(無導舞)의 공연예술콘텐츠화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2022

이를 통해 본다면, 석사학위논문은 학문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10년까지 7건의 학위논문이었던 것이 2011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관심과 연구가 대폭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분야별로 보면, 콘텐츠 개발 관련이 13편(40.6%), 활용 관련이 9편(28.1%), 장르가 6편(18.8%), 사회 문화 4편(12.5%) 등의 순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발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석원(2003)은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에서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시초로 불교문화나 문화재 관련 논문에서 문화콘텐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런데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하여 본격적인 석사논문의 출현은 2010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보람은 선무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원형 활용콘텐츠 기획에 관해, 정효림은 사찰 음식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통해 문화관광과 관련하여, 이찬우는 고려사경변상도를 소재로 게임콘텐츠 개발을, 성광모는 전등사 정보문화재의 콘텐츠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문화유산과 불교전통문화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전공을 가진 다양한 대학에서 전통문화콘텐츠와 종교문화콘텐츠 영역에서 불교문화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박사학위 현황이다. 총 14명의 박사가 배출되었다.

<표 9>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박사학위 현황

No.	저자	주 제	수여사항
1	이재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2007
2	박정희	문화산업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개발 방안연구 : 감로탱의 콘텐츠화 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08
3	김영렬	佛敎 靈山齋의 문화 콘텐츠화에 관한 研究	익산: 원광대학교, 2008
4	이윤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징	서울: 고려대학교, 2012
5	고상현	연등회의 축제문화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영성대학원, 2013
6	전재현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광주: 조선대학교, 2014
7	정진원	『三國遺事』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2015
8	서용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5
9	고순	한국 불교문화상품을 위한 패턴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민대학교, 2016
10	박성수	채상용 원리에 의거한 불교경전 아카이브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
11	장윤선	불교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17
12	최진구	한국불교 미디어의 포교기능성 강화를 위한 연구 :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불교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 동국대학교, 2017
13	한성열	불교 죽음관과 상장례의 콘텐츠화 연구	익산: 원광대학교, 2019

2007년 이재수를 필두로 하여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연구자가 14명이다. 이 가운데 동국대가 5명, 원광대가 2명 등 다양한 대학에 분포해 있다. 분야별로 보면, 장르가 6편(42.9%), 개발 관련이 5편(35.7%), 사회 문화가 3편(21.4%)의 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르와 개발 관련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수(2007)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불교문화콘텐츠의 필요성과 과제를 다루었고, 박정희(2008)는 감로탕의 콘텐츠화 과정을 통해 불교문화콘텐츠개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김영렬(2008)은 영산재의 문화콘텐츠화에 대해 논의하여 불교문화콘텐츠라는 학문을 소개하였다.

이윤수(2012)는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고, 고상현(2013)은 연등회의 축제문화를 전재현(2014)은 일본 불교가 차문화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정진원(2015)은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을 서용석(2015)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심신치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순(2016)은 한국 불교문화상품을 위한 패턴시스템 개발을, 박성수(2016)는 체상용 원리에 의거한 불교경전 아카이브를, 장윤선(2017)은 불교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방안을, 최진구(2017)는 한국불교 미디어의 포교기능성 강화에 대해서, 한성열(2019)은 불교 죽음관과 상장례의 콘텐츠화에 대해, 안현정(2021)은 한국불교설화기반 유아종교문화교육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모두 학계에 남아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박사학위 취득 이후 학술연구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

2.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 동향

불교문화콘텐츠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동국대의 전자불전연구소의 『전자불전』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논문이다.

<표 10> 전자불전(2005-2006)의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논문

No	저자	제 목	학술지명	권호사항
1	이용규	불교문화콘텐츠 전공교육 과정	전자불전	Vol.6[2005]
2	김양웅	불교문화콘텐츠 구축 현황 및 방향	전자불전	Vol.7[2005]
3	이재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 기획	전자불전	Vol.8[2005]
4	이재수, 이용규 외4인	보살상의 장신구 디지털콘텐츠 개발 기획: 석굴암십일면관음상, 고려수월관음도 등을 중심으로	전자불전	Vol.7[2005]
5	장은실, 이용규	상호대화식 불교문화 학습콘텐츠	전자불전	Vol.7[2005]
6	조현철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현황	전자불전	Vol.7[2005]
7	홍영식	불교문화콘텐츠 개발방향	전자불전	Vol.7[2005]
8	이금석	산업적 활용을 위한 불교문화콘텐츠 구축	전자불전	Vol.8[2006]

전자불전연구소는 불교학과 컴퓨터공학을 연계하여 불교경전 전산화와 문화콘텐츠 개

발을 시도하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5년 문화원형 지정과제 ‘앙코르왓의 디지털콘텐츠화’(2005. 12.1.~2006.8.31.) 수행을 계기로 2006년 연구소 명칭을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로, 2008년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로 변경하였다. 연구소에서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기초를 쌓는데 이바지 하였다.

전문학술지(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go.kr)’에서 ‘불교문화콘텐츠’를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재구성하여 불교문화콘텐츠와 관련이 있는 학술논문을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⁸⁾

<표 11>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 논문 일람

No.	저자	논문명	학술지 명	권(호)	발행년월
1	이재수(동국대학교)	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	불교학보	47	200708
2	이기욱, 박성은, 이용규(동국대학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이용한 탑 다리니 콘텐츠 제작 및 활용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11	200711
3	박정희(국민대학교), 김정연(서일대학)	불교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	조형미디어학	11-1	200802
4	유동환(안동대학교)	불교 문화유산의 세계 문화 콘텐츠화 전략 연구	불교학보	50	200812
5	이재수(동국대학교)	나옹왕사의 생애를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방안	대각사상	11	200812
6	고상현(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종교 페스티벌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수록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	200904
7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문화원형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52	200908
8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문화원형,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12	200912
9	구미래(성보문화재연구원)	불교 무형문화의 자산과 콘텐츠 가치에 대한 고찰 - 사하촌, 불교 일생의례, 불교 세시풍속을 중심으로 -	불교학보	55	201008
10	윤종갑(동아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	동양문화연구	6	201011
11	이영숙, 성민규(동국대학교)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연구방향 - 불교문화를 통한 종교캐릭터분류의 이해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포럼	29	201011
12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 : 월정사 탑돌이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56	201012
13	고미래(동국대학교)	‘불교게임’을 위한 시론적 고찰	불교학보	57	201102
14	표정옥(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 콘텐츠로 현현되는『삼국유사』의 대화적 상상력 연구 - 『삼국유사』 담론의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	서강인문논총	30	201104
15	최연주(동의대학교)	<고려대장경>의 불교문화콘텐츠 활용 방향	동아시아불교문화	7	201106
16	서계원(동국대학교)	불교 캐릭터와 지적재산권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201106
17	이재수(동국대학교)	한국 정토신앙 성지 순례코스 개발 연구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15	201106
18	이재수(동국대학교)	고려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의 방안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7-1	201106
19	고상현(동국대학교)	전통 그림자극 만석승희의 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한국민속학	54	201111

8)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SearList.kci> (2022.12.09. 검색)

	김기정(전주대학교)				
20	이재수(동국대학교)	고려대장경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禪學(선학)	30	201112
21	박익서(안양대학교)	Policy Direction and Successful Cases of Korean Religious Tourism	관광연구저널	25-5	201112
22	이동근(대구대학교), 정호원(대구대학교)	「元曉不羈」의 문화콘텐츠적 탐색	仙道文化	12	201202
23	이재수(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사업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17	201206
24	서계원(동국대학교)	불교게임과 지적재산권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8-1	201206
25	이영숙(동국대학교), 신승윤(부산대학교)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통문화원형의 캐릭터 분류 : 관음보살(觀音菩薩) 및 동자(童子)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7	201206
26	정동환(동국대학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불교문화콘텐츠 캐릭터 디자인 연구 - 폐사지 <경주 “감은사지(感恩寺址)”>를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포럼	36	201208
27	이재수(동국대학교)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방향	대각사상	18	201212
28	윤채근(단국대학교)	동아시아 역사 자산의 소설 콘텐츠화 - 指空 사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7	201304
29	표정옥(숙명여자대학교)	『삼국유사』 스토리텔링의 문화콘텐츠 생성 욕망과 신화적 독서의 생산성 연구 - 서정주의 <삼국유사> 해석의 시정신을 중심으로 -	동방학	27	201305
30	이재수(동국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종교문화연구	20	201306
31	최연주(동의대학교)	『고려대장경』과 문화콘텐츠 활용	문물연구	25	201403
32	이재수(동국대학교)	한국 종교문화원형 활용 현황과 과제	종교문화연구	22	201406
33	이영숙(동국대학교)	문화원형을 활용한 모바일 기능성게임 개발에 관한 연구 : 사천왕(四天王)을 틀린그림찾기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5	201406
34	최승용, 김기덕(건국대학교)	전통문화유산의 방송콘텐츠 활용 사례 연구 - TV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KBS <1박 2일> -	인문콘텐츠	33	201406
35	고상현(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강화 방안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5	201408
36	정진원(고려대학교)	『삼국유사』를 통한 한국문화 콘텐츠 개발 시론 - '운문사'와 '효선' 편 관련 한국 세계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201409
37	이재수(동국대학교)	삼화사 국행수륙대제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22	201412
38	김경덕, 김영덕(위덕대학교)	금강계만다라 애니메이션을 위한 상징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	201412
39	고상현(동국대학교)	불교축제로서 수륙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22	201412
40	장재진(동명대학교)	『화엄경』을 통한 불교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불교문화	22	201506
41	이재수(동국대학교)	한국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종교문화연구	24	201506
42	김일림(상명대학교)	종교 문화경관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5-3	201509
43	김경덕, 김영덕(위덕대학교)	만다라 결연 의식의 시각 콘텐츠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0	201510
44	고상현(동국대학교)	제주 문화유산정책의 회통적 관점에서의 방향 -불교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0	201510
45	신상기, 김효용(한성대학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불교문화원형 활용 사례연구 - 스마트폰 앱 게임 <아바로>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1-5	201512
46	양진호(플렉시큐리티)	시왕 이미지의 현대 콘텐츠 변용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6	201512

47	장재진(동명대학교)	예술학으로서 불교예술학의 지형과 방법	한국불교학	77	201602
48	전재현(조선대학교)	일본 불교가 차문화 콘텐츠 발전에 끼친 영향	차문화산업학	31	201603
49	김종일,전현성(동국대학교)	이주민 사회 현황과 불교의 역할에 관한 소고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형 제안 -	동아시아불교문화	26	201606
50	박종천(고려대학교)	<서유기>의 신화적 콘텐츠 변용 양상 연구 - MSMU의 콘텐츠 융합 - 최적화 전략 -	종교문화연구	26	201606
51	강석근(동국대학교)	골굴사의 선무도 문화콘텐츠 활용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84	201609
52	박재현(동명대학교)	박상룡의 「소설법」에 내포된 선(禪)적 사유와 불교 스토리텔링	人文學研究	26	201612
53	홍태한(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박인서(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수록재 문화콘텐츠화의 방향과 과제 검토	실천민속학 연구	29	201702
54	이재수(동국대학교)	인류무형문화유산 분야 종교의례 등재 현황과 연등회 등재의 과제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27	201706
55	손인애(서울대학교)	영산재 문화콘텐츠화의 전개 양상과 과제 -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27	201706
56	문정혜,김현주(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단청의 전통 문양과 프로젝션 매핑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제작 연구 - 작품 "이 순간"을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	15-3	201706
57	최민성(한신대학교)	축제의 관점에서 본 연등회 고찰	한국언어문화	63	201708
58	장재진(동명대학교)	호압사의 가람과 콘텐츠를 위한 제언	한국불교학	83	201709
59	이재수(동국대학교)	화과원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 모색	대각사상	28	201712
60	고상현(대한불교조계종)	융복합 문화로서 재조대장경과 판각지 남해의 문화콘텐츠 개발	불교학보	81	201712
61	우혜란(서울대학교)	종교문화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종교학적' 접근 -진각종의 문화사업을 사례로-	신종교연구	38	201804
62	이재수(동국대학교)	4차 산업혁명의 시대 VR/AR을 이용한 불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방향	한국불교학	87	201808
63	김경덕,김영덕(위덕대학교)	기원에 따른 33관음의 시각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8-9	201809
64	이재수(동국대학교)	봉은사 역사문화콘텐츠 기획 및 활용 방안	종교문화연구	31	201812
65	고상현(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골굴사와 선무도의 축전문화콘텐츠 연구	불교학보	85	201812
66	황충하(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신흥 개발 도심의 불교문화콘텐츠 구성 방향 -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예로 하여	불교문예연구	12	201902
67	박정민(동국대학교)	한국 불교 영화에서의 승려 캐릭터 변화 연구-2000년대 이후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7	201906
68	이재수(동국대학교)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32	201912
69	김경덕,김영덕(위덕대학교)	주제어에 따른 시왕의 디지털 콘텐츠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4	202004
70	김상남,이영숙(동국대)	실감형미디어기반 불교의 열반 체험 VR콘텐츠 융합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61	202004
71	김연희(국민대학교)	경천사 10층 석탑을 컨셉으로 한 AR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 콘텐츠 설계 및 제안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9-2	202006
72	한성열(동국대학교)	전통 상장례의 문화콘텐츠 활용 불교 상장례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16-3	202009
73	한성열(동국대학교)	불교영화에 나타난 죽음의 인식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5	202009
74	오정열(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성공적인 불교문화 콘텐츠 확산 전략	종교교육학연구	64	202012

75	한성열(중앙승가대학교)	한국불교의 포교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가요의 활용-계율적 관점에서 트로트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44	202012
76	이재수(동국대학교)	한국 근현대 생전예수재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 - 봉은사를 중심으로 -	대각사상	34	202012
77	정경식(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1세기 디지털 콘텐츠 영역의 불교문화 콘텐츠 개선 방안 -청소년 대상 포교 전략을 중심으로 불교교육을 시사점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65	202102
78	김경덕,김영덕(위덕대학교)	팔엽심련만다라(八葉心蓮曼陀羅)의 의미분석과 시각화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202104
79	이재수(동국대학교)	전통사찰 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35	202106
80	고상현(불교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한국불교의 세계화 현황과 비전- 대한불교조계종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48	202112
81	이재수(동국대학교)	한국불교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 대흥사 호국대전을 중심으로 -	정토학연구(淨土學研究)	37	202206

이들 논문을 분류해보면, 사회 문화 관련이 41편(50.6%), 활용 관련이 18편(22.2%), 개발, 제작이 11편(13.6%), 장르가 11편(13.6%) 등의 순으로 사회 문화 관련으로 인문학 분야에서 논의한 부분이 절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 토대구축 단계(~2010)이다. 주로 불교문화콘텐츠의 필요성과 이론적인 토대 관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8인의 저자가 12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재수의 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을 시작으로 5편의 논의를 통해 불교문화콘텐츠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 시론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다양한 연구자들이 주로 제안의 형태로 학문적 토대를 이루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활용 및 전개의 단계(2011~2020)이다. 이때의 연구주제는 다양한 장르와 문화유산, 활용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34인의 저자가 6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고상현은 축제와 무형문화유산 관련 콘텐츠화와 관련한 논문 6편, 김경덕, 김영덕은 밀교와 만다라 관련 콘텐츠화 관련 4편, 서계원은 지적재산권 관련 2편, 이영숙은 캐릭터와 모바일콘텐츠 고나련 2편, 이재수는 사회 문화, 활용 및 개발 등의 분야의 논의를 15편, 장재진은 활용 관련 3편, 한성열은 포교와 영화 관련 3편 등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셋째, 새로운 모색의 단계(2021~)로 볼 수 있다. 이는 불교문화콘텐츠라는 영역으로 다양한 융복합, 활용 등의 논의를 확산해야하는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서 본다면, 불교문화콘텐츠학 분야의 중견 연구자의 부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다.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고 연구를 지속해온 중견 연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로 말할 수 있다.

첫째, 불교문화콘텐츠학의 학문적 토대 구축이 되어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즉 2010년까지 학문적 토대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그 토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자 인력 풀의 취약성과 불교계 및 학계의 관심과 연구 여건의 미비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

둘째,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교육을 통해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과 불교문화콘텐츠 생태계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요구

는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그것은 다양한 활용을 요구하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거시적 변화의 물결을 담고 있는 문화콘텐츠학”⁹⁾의 특성상 필연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토대로 불교문화콘텐츠학은 토대는 부실하지만,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으므로 불교문화콘텐츠 진흥 전략과 지원책이 시급하며, 그 성과도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Ⅲ.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체계와 방법

1. 불교학 관련 교육환경과 체계

현재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불교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현황을 보자. 학과 명칭에 ‘불교’ 관련이 있는 학과를 살펴보았다. ‘대학알리미’에서 학과정보에서 ‘키워드 별 학과정보’에서 ‘불교’, ‘명상’을 검색하여 재구성하였다.¹⁰⁾

<표 12> 명칭에 ‘불교’ 관련 있는 대학

No.	학과명	학교명	학교종류	상태	표준분류계열(대)	표준분류계열(중)	표준분류계열(소)
1	불교인문학부	금강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2	불교학전공	금강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3	불교미술전공	동국대학교	대학교	기존	예체능계열	미술	순수미술
4	불교학부	동국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5	불교학부	동국대학교(WISE)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6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동국대학교(WISE)	대학교	신설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7	불교학전공	동국대학교(WISE)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8	명상심리상담학과	동국대학교(WISE)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	심리학
9	선명상치유학과	동명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문화·민속·미술사학
10	불교문화학과	위덕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1	불교사회학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	사회학
12	불교학부	중앙승가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3	불교학역경학전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표 13> 불교 관련 대학별 현황

구분	상태		계	표준분류계열(소)	
	기존	신설		미술	인문학
대학교	기존	12	13	미술	1
	신설	1		사회과학	2
				인문학	10
계			13		

이를 보면, 6개 대학에 13개 학과 및 전공이며, 이들 대부분은 기존학과로 대부분 인문사회계열>인문학>종교학으로 표준 분류가 되어 있다. 2022년 현재 동국대학교(WISE)

9) 이종훈(2020), 「문화콘텐츠학과 기존 학문분류체계의 충돌과 공존 가능성」, 『콘텐츠문화연구』 2, 콘텐츠문화학회, p.18.

10) 대학알리미 검색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50/doInit.do> (2022.12.08. 검색)

에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이 신설된 것이 주목된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부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불교학부의 교육목표는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이론·교학과 실천·응용이란 두 가지 트랙에서 다양한 전공 교과목들을 제공하여 지행합일의 진취적인 인격을 연마하도록 한다. 불교학부는 범어, 한문, 팔리어, 티벳어와 같은 필수 고전 언어들과 불교학·선학·인도 철학의 주요 연구 분야들을 폭넓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각 학문분야의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함과 아울러 현대사회와 교계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분야의 다양한 강좌들을 제공하여 불교적 인격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추구한다.¹¹⁾

이를 통해 보면, 불교정신에 근거해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이론·교학과 실천·응용 두 가지 트랙으로 하여 불교적 인격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을 “현대사회와 종교계가 요구하는 필수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불교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 쪽으로 학문적인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 불교학부에서는 이러한 이론·교학과 실천·응용이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분야로서 연구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연구되어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학과 응용을 겸비하는 종합적인 학문을 지향”한다고 하였다. 불교학부의 교육목적은 “지혜와 자비의 불교적 인격을 함양한 사회 지도자 양성”이다. 즉 교학과 응용을 융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트랙기준으로 트랙별 교육과정 이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²⁾

<표 14> 트랙이수기준 (2022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구분 트랙명	교학 불교		응용 불교	
	학문후속	포교활동	종무행정	명상심리
이수과목	-세방화시대영어와불교	-불교의수행과신행	-한국선사상과조계종사	-선심리상담의이론과실제
	-범어입문	-한국선사상과조계종사	-사찰경영과종무행정	-종교심리학
	-팔리어	-종교학개론	-불교문화의이해	-명상과아동·청소년상담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중국불교사	-불교교단사	-한국선사상과조계종사
	-인도불교사	-인도불교사	-간화선실습	-한국선문헌연습
	-반야사상	-돈황학	-불교사회경제사상	-불교의수행과신행
	-종관학	-불교문화의이해	-세계종교	-중국선사상
	-계율학	-선문화론	-불교의수행과신행	-중국선문헌입문
	-아비달마	-불교생태학	-선과 현대사회	-선과현대사회
	-유식학	-불교사회경제사상	-선문화론	-선문화론
	-천태학	-계율학	-종교학개론	-간화선실습
	-정토학	-화엄학	-융복합적종교심리와경전	-여래장의 이해
	-화엄학	-정토학	해석	-인도선사상
	-초기불교	-중국선사상	-명상음악의이해	-명상음악의 이해
	-중국선사상	-한국선문헌연습	-초기불교	-위빠사나의이해와실습
	-한국선사상과조계종사	-선과 현대사회	-정토학	-유식학
-밀교·티벳불교	-명상음악의이해	-불교생태학	-반야사상	
-경전해석학	-위빠사나의이해와실습	-위빠사나의이해와실습	-초기불교	

11)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육목표 <https://bs.dongguk.edu/page/6> (2022.12.09. 검색)

12) 불교대학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https://www.dongguk.edu/resources/pdf/curriculum/1.2022_course_catalog_bouddhist.pdf (2022.12.09. 검색)

	-한국불교사상과 한국종교 -불교생태학 -불교사상과서양철학 -근현대인도사상 -일본의 불교와 문화 -종교학개론 -인도인식논리학 -티벳어 -불교윤리학 -인도의신화와문학 -돈황학	-간화선실습 -명상과 아동·청소년상담 -아비달마 -동아시아대승불교 -종교학개론 -세계종교 -세방화시대영어와불교 -한국불교사상과한국종교 -초기경전산책 -불교윤리학 -인도의신화와문학	-선심리상담의이론과실제 -명상과 아동·청소년상담 -초기경전산책	-인도인식논리학 -아비달마 -불교리더십 -불교문화의 이해 -세방화시대영어와불교
졸업요건	졸업시험 / 한자 자격 시험(3급) 이상 PASS			
전공인증	트랙이수증명서 신청원 제출자에게 불교대학장 명의의 '트랙이수증명서' 발급			
※ 트랙 이수는 최대 2개까지 가능함		※ 트랙의 결정은 졸업 시에 결정할 수 있음		
※ 전공 취득학점 중 해당 트랙을 단일전공자 21학점, 복수전공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트랙이수증명서 신청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이론·교학과 실천·응용이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동국대는 응용불교 트랙에 중무행정과 명상심리를 두어서 교학과 응용을 지향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금강대학은 불교학전공을 “불교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절제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함양한 참된 인성의 소유자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이와 함께 읽고 쓰고 발표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도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¹³⁾라고 소개하였다.

불교학전공의 진로를 “첫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불교 지식을 활용하여 신문, 방송, 출판, 홍보 등과 같은 관련 업종에 진출하거나 명상, 음식 등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활용하여 벤처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불교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익힌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사무직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소개하였다.

<표 15> 금강대학 불교학전공 교육과정

학 년	1학기					2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 능력	비 고	이수 구분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 능력	비 고
2	전공	BA11052	인도불교의 역사	3-3-0	①④		전공	BA11046	불교철학의 기초	3-3-0	⑥	
	전공	BA11053	불교경전의 이해	3-3-0	①		전공	BA11060	중국불교의 역사	3-3-0	④⑤	
	전공	BA11054	한문경전 읽기1	3-3-0	③①		전공	BA11061	한문경전 읽기2	3-3-0	③⑥	
	전공	BA11055	초기불교의 사상	3-3-0	⑥		전공	BA11007	중급산스크리트	3-3-0	③⑥	
	전공	BA11002	초급산스크리트	3-3-0	③		전공	BA11062	천태교학 입문	3-3-0	①⑥	
	전공	BB11019	불교영어실습	3-2-1	③④							
	합계	6과목(18학점)					합계	5과목(15학점)				
3	전공	BA11024	반야중관사상	3-3-0	⑥		전공	BA10006	천태법화사상	3-3-0	⑥	
	전공	BA11014	초급티벳어	3-3-0	③		전공	BA11015	유식사상	3-3-0	⑥	
	전공	BA11048	한국불교의 역사	3-3-0	①		전공	BA11040	불교원전강독	3-3-0	③⑥	
	전공	BA11063	천태수행 입문	3-3-0	①④		전공	BA11020	중급티벳어	3-3-0	③⑥	
	전공	BA11064	불교인식논리학	3-3-0	⑥		전공	BA11066	대승불교 세미나	3-3-0	⑤⑥	
	전공	BA11065	불교미디어1	3-3-0	④⑥		전공	BA11067	법화경의 이해	3-3-0	⑤	
전공	BB11006	불교와 과학	3-3-0	⑤⑥		전공	BA11068	한국천태사상	3-3-0	⑥		

13) 금강대학교>대학/대학원>불교학전공(복수전공) ht tps://ggu.ac.kr/sub04010103 (2022.12.08. 검색)

전공	BB11007	불교심리학	3-3-0	⑥	전공	BA11069	불교미디어2	3-2-1	④⑥
					전공	BB11009	불교경영학	3-3-0	⑤⑥
					전공	BB11002	불교생태학	3-3-0	②⑤
					전공	BA11008	불교윤리학	3-3-0	①②
합계	8과목(24학점)				합계	11과목(33학점)			
전공	BA11026	화엄사상	3-3-0	①	전공	BA11072	불교철학 세미나	3-3-0	⑤
전공	BA11070	요가수행의 이론과 실제	3-2-1	①②	전공	BA11073	불교학 연구방법론	3-3-0	⑤⑥
전공	BA11071	불교와 예술	3-3-0	④	전공	BB11023	선과 다도	3-3-0	④
					전공	BA11050	티베트불교	3-3-0	④
합계	3과목(9학점)				합계	4과목(12학점)			
계	17과목 (51학점)				계	20과목 (60학점)			
총계	37과목 (111학점)								
♣ 전공능력 : ①자아인식능력 ②공감능력 ③외국어능력 ④문화수용전파능력 ⑤통섭능력 ⑥지식활용능력									

금강대학교 불교교학과 응용불교 영역을 두어 융합적 인재양성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교 관련 대학원 현황을 살펴보자.

<표 16> 명칭에 '불교' 관련 있는 대학원

No.	학과명	학교명	학교종류	상태	표준분류계열(대)	표준분류계열(중)	표준분류계열(소)
1	불교학과	금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2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3	불교학과	동국대학교(WISE)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4	불교문화학과	동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5	불교학과	위덕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6	불교학과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7	불교학과	능인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8	명상심리학과	능인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9	불교문예학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0	불교학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1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2	국제불교영어학과	동국대학교(WSE) 불교문화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3	불교학과	동국대학교(WSE) 불교문화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4	불교학과	위덕대학교 불교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종교학
15	불교풍수문화학과	동국대학교(WSE) 불교문화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인문학	문 화 · 민 속 · 미 술 사 학
16	명상심리상담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	심리학
17	불교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18	불교상담학과	동국대학교(WSE) 불교문화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19	불교예술문화학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인문사회계열	N.C.E	N.C.E.
20	불교예술학과	동국대학교(WSE) 불교문화대학원	특수대학원	기존	예체능계열	N.C.E	N.C.E.

<표 17> 불교 관련 대학원별 현황

구분	상태		계	표준분류계열	
일반대학원	기존	6	6	인문사회계열	6
전문대학원	기존	4	4	인문사회계열	4
특수대학원	기존	10	10	인문사회계열	9
				예체능계열	1
계			20		

전체 9개 대학에서 20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본다면, 대학원 과정은 불교학과가 절반인 10여 곳이고, 이외에는 불교문화 및 명상심리상담과 불교예술 관련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학과 응용실천이 양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불교학 관련 전공교육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지향한다. 즉 교학과 응용을 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환경과 체계

1) 불교문화콘텐츠학 학부과정 교육환경과 체계

200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문화콘텐츠학과’가 2003년 한신대학교에 문화정보학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된 것이 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출발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콘텐츠 관련 교육 환경은 놀랍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디지털콘텐츠(컨텐츠) 전공(학부)이 3단위, 멀티미디어콘텐츠 전공이 1단위, 디지털문화콘텐츠 전공이 1단위,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 전공이 1단위, 문화기획 전공이 1단위가 있었으며, 연계전공(문화정보경영 전공) 1단위가 개설되어 있었다. 총 7단위의 학부/학과/전공 중 3단위가 ‘디지털콘텐츠’ 계열 콘텐츠 학부/전공이었고, 4단위가 ‘문화콘텐츠’ 계열 콘텐츠 학과/전공”¹⁴⁾이라고 하였다.

2013년에는 “‘문화콘텐츠’ 계열 콘텐츠 대학/학부/학과/전공이 32종, ‘디지털콘텐츠’ 계열 콘텐츠 대학/학부/학과/전공이 22종”¹⁵⁾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2022년 현재 상황을 간략히 보자면, 학과의 명칭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대학, 전문대학은 전체 180개이다.¹⁶⁾

<표 18> 콘텐츠 관련 대학별 내역

구분	상태		계	계열별	
	기존	신설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대학교	기존	86	109	공학계열	17
	변경	12		예체능계열	32
	신설	11		인문사회계열	60
전문대학	기존	34	65	공학계열	28
	변경	15		예체능계열	33
	분리	2		인문사회계열	3
	통합	1		자연과학계열	1
	신설	13			
사이버대학(대학)	기존	3	4	공학계열	2
	변경	1		예체능계열	2
기능대학	기존	2	2	공학계열	2
계			180		

14) 신광철(2014), 「대학에서의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의 현재와 미래」, 『인문콘텐츠』 32, 인문콘텐츠학회, p.30.

15) 신광철(2014), 위의 논문, p.30.

16) 키워드별 학과정보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50/doInit.do> (2022.12.08. 검색)



지역	학과수	지역	학과수
전체	100	서울	29
부산	16	대구	6
인천	3	광주	7
대전	7	울산	2
경기	55	강원	10
충북	13	충남	8
전북	5	전남	4
경북	6	경남	3
제주	0	세종	6

<그림 2> '콘텐츠' 관련 대학 현황

대학은 인문사회계열(60)이 공학계열(17), 예체능계열(32)의 합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대학은 공학계열(28), 예체능계열(33)이 인문사회계열(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를 통해 보면, 대학은 인문콘텐츠 관련이 디지털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보다 많고, 전문대학은 디지털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 관련 학과 및 전공의 증가에는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증가의 반영이라고 본다.

논자는 2013년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을 통해서 불교문화콘텐츠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을 발표하였다. 이때 논자는 첫째,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 둘째, 대학원에서 불교문화콘텐츠의 연구와 응용을 위한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제안하였다.¹⁷⁾

이는 불교학의 범주에 응용불교학에서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위치와 문화콘텐츠학과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관계에서 학문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조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즉 보편학문으로 문화콘텐츠학과 특수성으로서의 불교는 상하의 개념이나 대립항이 아닌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 이는 불교문화콘텐츠의 가치 지향에서 공공성의 증진을 위한 '대중의 이익과 안락'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불교문화콘텐츠'라는 과목이 전공선택 3학점으로 2013년 개설되어 2016년까지 운영되었다.

아울러 논자는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육과목의 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¹⁸⁾ 이는 교육과정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교육체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불교학 및 인문학과 예술학과 연계 내지는 협업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교육과목을 제안한 기준은 일찍이 신광철의 문화콘텐츠 교육과정의 설계 모델에서 '기획(창출)', '개발(제작)', '시장(유통, 관리)'에서 '문화기획'까지 4개의 분야를¹⁹⁾ 기초로 제안하였음을 밝혀둔다.

17) 이재수(2013),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방향과 교육방법 고찰」, 『종교문화연구』 20,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p.257.

18) 이재수(2013), 위의 논문, pp.268-269.

19) 신광철(2003), 「학부 수준에서의 문화콘텐츠학과 교과과정의 분석과 전망」, 『인문콘텐츠』 2, 인문콘텐츠학회, pp.7-25. 참고.

<표 19>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육과목 예시

학년	이수구분	교과명	1학기		2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1	전공 필수	문화콘텐츠 입문	3	3		
		디지털문화의 이해	3	3		
		창의적 발상법			3	3
		프레젠테이션 전략과 실습			3	3
	전공 선택	철학과 콘텐츠	3	3		
		역사와 콘텐츠	3	3		
		문학과 콘텐츠			3	3
2	전공 선택	종교학과 콘텐츠			3	3
		멀티미디어 제작도구의 이해			3	3
		문화코드와 대중문화	3	3		
		일상생활과 문화원형	3	3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기획실습	3	3		
		신화와 문화콘텐츠	3	3		
		스토리텔링 이론과 실습	3	3		
		세계문화유산과 불교	3	3		
		캐릭터 이해와 기획			3	3
		불교설화와 콘텐츠			3	3
		만화와 애니메이션 기획론			3	3
		문화콘텐츠 트렌드 분석			3	3
3	전공 선택	디지털스토리텔링 실습			3	3
		종교문화원형과 불교	3	3		
		템플스테이 기획과 문화콘텐츠	3	3		
		문화트랜드와 브랜드 순례	3	3		
		차문화와 콘텐츠	3	3		
		사찰과 지역문화콘텐츠 기획	3	3		
		다큐멘터리 기획실습	3	3		
		공연문화 기획실습			3	3
		불교문화원형과 개발과 활용			3	3
		성보박물관 순례			3	3
		영상제작편집실습			3	3
		성지순례 문화콘텐츠 기획			3	3
4	전공 선택	신화콘텐츠제작실습			3	3
		문화산업정책의 이해				
		한류와 문화산업	3	3		
		사찰음식콘텐츠 기획실습	3	3		
		문화콘텐츠 제작실습	3	3		
		불교축제 기획실습	3	3		
		앱콘텐츠 세미나			3	3
		문화콘텐츠 마케팅			3	3
		사찰과 테마공간			3	3
문화콘텐츠 인턴십			3	3		

아울러 응용불교학의 분과학문으로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불교문화의 공공성 증진에 두어야 한다. 대중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해 불교문화가 존재해온 사회적 소통의 복합적 문화교류의 총체적 발현을 통한 공공재로서의 불교문화유산의 현재적 발현에 이바지 해야 한다.

둘째, 불교의 종교성을 확장을 위한 사회적 소통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불교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여 포교의 선교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불교의 종교적 목표인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불교문화의 대중성 회복에 이바지해야 한다. 콘텐츠를 통해 불교의 가치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감동을 받으며 즐길 수 있는 중생의 근기에 맞도록 기획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유통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 동국대학교(WISE) 불교대학은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을 개설하였다. 동국대학교(WISE)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콘텐츠 전공은 불교계의 중무행정과 문화행정 분야의 전문 인력에 대한 미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규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불교정신과 불교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수요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는 실용학문을 추구하는 전공으로서 불교문화콘텐츠 전공을 설립하였습니다.”²⁰⁾

전공 누리집에 불교문화콘텐츠 전공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와 불교전통 그리고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불교문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재창조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문화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특히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행정·중무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전공입니다.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무원, 동국대학교 교직원, 대한불교조계종 산하기관과 각 교구본사 및 말사, 각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보박물관과 템플스테이 주무기관, 불교방송(BBS)과 불교텔레비전(BTN) 그리고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을 포함한 불교계 언론기관 등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²¹⁾

<표 20> 동국대학교(WISE) 불교문화콘텐츠전공 전공개설 총괄표

이수 영역	이수 대상	개설 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비고
기초 교육 과정	1	1	BUD101	불교학의이해	3	3	0	(공통)
			BUC101	불교문화학길라잡이	3	3	0	
		2	BUC102	불교신행과문화	3	3	0	
			BUD105	초기불전	3	3	0	(공통)
	2	1	BUD203	인도불교사	3	3	0	(공통)
			BUD204	중국불교사	3	3	0	(공통)
			BUC201	불교와 문화산업	3	3	0	(신설)
			BUC202	경주의불교문화와현장	3	3	0	
		BUD215	한국불교	3	3	0	(공통)	
		2	BUD209	대승불교개론	3	3	0	(공통)
			BUD211	불교영어입문	3	3	0	(공통)
			BUD214	종전강독	3	3	0	(공통)
			BUD217	중국선종사	3	3	0	(공통)
BUC203	사원공간의이해		3	3	0			
전문 교육	3	1	BUC301	템플스테이기획	3	3	0	(신설)
			BUC302	불교문화교류의역사	3	3	0	

20) 불교문화콘텐츠전공>전공소개>전공연혁 <https://bcc.dongguk.ac.kr/> (2022.12.08. 검색)

21) 불교문화콘텐츠전공>전공소개>전공개요 <https://bcc.dongguk.ac.kr/> (2022.12.08. 검색)

과정	2	BUD310	한국선사상사	3	3	0	(공통)	
		BUD315	한국종교	3	3	0	(공통)	
		BUC303	불교스토리텔링	3	3	0		
		BUC304	세계불교문화유산기행	3	3	0		
		BUC305	불교문화콘텐츠기획과실제	3	0	3		
		BUC306	사찰문화와종무행정	3	3	0		
	계절	BUC307	불교문화콘텐츠현장실습1	3	0	160	(신설)	
	4	1	BUC401	비디오플랫폼과쇼셜미디어콘텐츠	3	0	3	(신설)
			BUC402	참선지도방법론	3	3	0	
			BUC403	불교와차문화	3	0	3	
		2	BUC404	불교박물관전시기획	3	3	0	(신설)
			BUD422	선문학특강	3	3	0	(공통)
	계절	BUC405	불교문화콘텐츠현장실습2	3	0	160	(신설)	



<그림 3> 동국대학교(WISE) 불교문화콘텐츠전공 이수 체계도

1906년 명진학교로 시작한 동국대학교는 1978년 경주에 캠퍼스가 설립되고, 1985년 불교 중흥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며 불교학과를 설립하고, 1995년 선학과(승가학과)를 설립했다. 2013년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두 학과 통합하여 불교학부가 설립됐다.

2021년 불교학부는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습과 사회진출을 위하여 불교학전공과 불교문화콘텐츠전공으로 전공을 분할하여 학생 모집을 진행하였다.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의 교육의 목표는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인문학 지식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불교의 가치를 확산하고 또한 문화산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인재를 육성합니다.”라고 하였다. 인문학적 지식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국대학교(WISE) 불교문화콘텐츠전공 이수는 문화콘텐츠개발분야, 언론방송제작분야, 군승 및 종무행정분야, 불교관련 언론 및 산업(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기획전문가) 등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기초교육과정은 불교와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교육과정은 문화콘텐츠개발분야, 언론방송제작분야, 군승 및 종무행정분야, 불교관련 언론 및 산업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배치하였다.

2) 불교문화콘텐츠학 대학원과정 교육환경과 체계

2022년 기준으로 학과의 명칭에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대학원, 대학원대학을 살펴보면 전체 81개이다.²²⁾

<표 21> 콘텐츠 관련 대학원별 내역

구분	상태		계	계열별	
	기존	신설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일반대학원	기존	41	46	공학계열	4
	변경	2		예체능계열	15
	신설	3		인문사회계열	27
전문대학원	기존	4	5	예체능계열	3
	변경	1		인문사회계열	2
	기존	28		공학계열	3
특수대학원	신설	2	30	예체능계열	5
				인문사회계열	22
계			81		



지역	학과수	지역	학과수
전체	81	서울	22
부산	6	대구	0
인천	2	광주	7
대전	2	울산	0
경기	16	강원	1
충북	4	충남	5
전북	4	전남	3
경북	3	경남	4
제주	0	세종	2

<그림 4> '콘텐츠' 관련 대학 현황

대학원 또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도 인문콘텐츠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학과가 개설되어 거의 절반에 다다른다. 이와 같이 학과 및 전공의 개설 상황은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확장은 물론 콘텐츠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체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세우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원의 불교문화콘텐츠학과는 일반대학원보다 전문대학원 내지는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평수·박치완은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융합교육을 위해 미래형 문화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인재양성과 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³⁾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졌다.²⁴⁾ 문화콘

22) 키워드별 학과정보 <https://www.academyinfo.go.kr/mjrinfo/mjrinfo0450/doInit.do> (2022.12.08. 검색)

23) 김평수·박치완(2014), 「문화콘텐츠, 대학원 융합교육의 현재와 미래」, 『인문콘텐츠』 32호, 인문콘텐츠학회, p.97.

24) 최정일·류해춘(2016), 「문화콘텐츠 관련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 『인문콘텐츠』 42호, 인문콘텐츠학회, p.189.

텐츠학에서 “문화콘텐츠를 장르화 하지 않고 이를 관통할 수 있는 지적 체계의 구축”²⁵⁾ 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을 횡단하는 방식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 교육체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디지털불교학이다.²⁶⁾ 불교학의 기본 토대가 되는 원전(대장경 및 불교 기록유산)의 디지털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²⁷⁾ 성과를 기반으로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문, 문화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불교학을 하는 것이므로 불교문화콘텐츠학은 연구의 방법론에 따라서 디지털불교학의 범위에 있다고 본다.

디지털불교학은 초연결과 융복합의 4차산업혁명의 시대의 필연적인 불교문화콘텐츠학의 토대이다. 디지털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문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능력”²⁸⁾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교육이 ①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②디지털 데이터의 진실여부를 구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③디지털 콘텐츠를 생산, 가공, 유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능력, ④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⑤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능력, ⑥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 ⑦디지털 감수성²⁹⁾ 등의 7가지 영역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술-친화적’이고 ‘주체적 기술 활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콘텐츠 리터러시’ 프로그램³⁰⁾에 대한 제안은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주요한 흐름은 교육의 유형과 미디어 이용방식으로 보면, 시청각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해형에서 가상공간 체험을 통한 창의형과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는 확산형을 지향해야 한다.³¹⁾

불교문화콘텐츠학과는 불교학과 문화학, 문화유산을 토대로 및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전통 학문과 현대 응용을 넘나드는 열린 연구와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향후 실감미디어 기술과 가상현실기술 등 첨단 기술과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융합 및 연계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한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 교육을 목표로 한다.

불교문화콘텐츠학과는 불교문화전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불교문화유산전공 등 3개 전공으로 제안한다. 각 전공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제안한다.

불교문화전공은 첫째, 불교학 기반의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

25) 임대근(2015), 「문화콘텐츠연구의 학문적 위상」, 『인문콘텐츠』 38, 인문콘텐츠학회, p.134.

26) 박보람(2016), 「디지털 인문학 시대, 불교학의 대응 현황과 과제」, 『佛敎學報』 7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 김바로(2019),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불교학」, 『佛敎學報』 8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7) <https://kabc.dongguk.edu/>

28) 윤옥한(2020), 「코로나 19 이후 교양 교육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14-4, 한국교양교육학회, p.29.

29) 윤옥한(2020), 위의 논문, pp.29~30.

30) 신광철(2020),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 『인문콘텐츠』 59, 인문콘텐츠학회, p123.

31) 이지혜, 김정화(2018),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분석 및 방향 제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3, 한국콘텐츠학회, p.48.

과 영역에 기반한 불교문화 전반의 지식을 갖춘 현장 중심의 불교전문가를 양성한다. 둘째, 불교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문화 가치를 확산하고 다양한 불교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불교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불교문화기획자를 양성한다. 셋째, 전총사찰의 불교의례, 템플스테이, 연등축제 등 한국불교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세계화할 수 있는 불교문화전문가를 양성한다.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은 불교를 소재로 한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 콘텐츠를 접목하고 이야기를 창출해 내고, 불교문화콘텐츠 전반을 기획해 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불교문화콘텐츠 기획자를 양성한다. 다양한 문화의 현장에서 불교문화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수 있는 불교문화콘텐츠 마케팅, 프로모션까지 확장할 수 있는 융복합형 불교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한다.

불교문화유산전공은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불교문화유산의 활용을 증진할 수 있는 불교문화유산 디벨로퍼를 양성한다. 전통사찰은 물론 성보박물관 및 다양한 문화현장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및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업무까지 아우를 디지털 불교문화유산 매니저를 양성한다.

<표 22> 불교문화콘텐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안)

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수업방식
공통	선수	한국불교사	2	이론
	선수	불교문화 연구	2	이론
	선수	한국불교문화 연구	2	이론
	선수	디지털불교학 연구	2	이론
	선수	디지털헤리티지 연구	2	이론
불교문화전공	전공	초기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인도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동남아시아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중앙아시아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티벳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중국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일본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간화선과 한국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현대사회와 불교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사찰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윤리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와 음식문화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와 음악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문화정책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와 휴머니즘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가상현실시대와 불교윤리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한류와 불교문화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가상현실과 불교문화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문화답사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 세미나	3	이론+실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전공	불교문화콘텐츠학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문화원형 활용론	3	이론
	전공	문화브랜딩과 마케팅론	3	이론
	전공	불교와 게임콘텐츠	3	이론
	전공	불교문화와 디지털스토리텔링	3	이론
	전공	문화콘텐츠 조사 및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문화콘텐츠 비평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만화와 애니메이션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캐릭터 디자인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전자불전과 아카이브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구술사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한류와 불교문화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성지순례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템플스테이와 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사찰과 지역문화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힐링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차문화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실감미디어 활용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한류와 불교문화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가상현실과 불교문화콘텐츠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축제콘텐츠 개발 실습	3	이론+실습
	전공	포교콘텐츠 개발 실습	3	이론+실습
	불교 문화유산 전공	전공	불교문화유산 활용론	3
전공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	3	이론
전공		세계문화유산과 불교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미술사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공예사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건축사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무형문화유산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기록문화유산 연구	3	이론
전공		불교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문화유산 정보관리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성보박물관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사이버 박물관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성보박물관 전시기획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가상현실과 불교문화유산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사찰문화경영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문양디자인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불교문화상품 개발 세미나	3	이론+실습	
전공	사찰과 테마공간 세미나	3	이론+실습	

이상과 같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은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연구와 기획 및 개발은 물론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전문가는 불교문화 관련 교양은 물론 “테크놀로지·인문학적 기획력·예술적 감수성·마케팅의 융합”³²⁾을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체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협력체계라고 생각한다. 즉 교육체계와 연계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력과 협업하는 또는 겸업하는 연구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산업 관련 연구소가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가)불교문화연구센터는 인문학(문학, 사학, 철학)과 불교철학, 불교사학, 응용불교학, 불교문화학 등 불교학은 물론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학 나아가 예술 및 영상 관련 연구자들과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각종 프로젝트의 생산과 참여를 통해 학문 후속 세대의 교육이 연계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연구기능은 물론, 부족한 교수 인력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불교문화생산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협업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신광철(2006), 「인문학과 문화콘텐츠」,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p.216.

3.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방법론

불교문화콘텐츠학과는 불교학, 인문학적 이론을 근간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기획과 유통 및 활용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김평수, 박치완(2014)은 문화콘텐츠 대학원 교육에서 융합교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첫째 융합의 분류체계와 목표를 분명히 선정할 것, 둘째 융합교육 교강사 양성과 연구의 촉진, 셋째 융합교육을 위한 인력 교류의 활성화, 넷째 융합교육을 위한 인력 교류의 활성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³³⁾ 이러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교육방법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첨단기술(VR/AR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도입은 시간, 공간의 한계는 물론 정보자원의 한계를 넘어서 몰입감 있게 창의 교육과 논리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은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교육의 위기 대학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수업 방식을 디지털 환경을 통한 비대면, 원격 내지는 온라인 기반 교육시스템으로 강제 전환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IC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에듀테크(EduTech, Education+ Technology)의 도입은³⁵⁾ 문화콘텐츠학 교육의 한계와 문화콘텐츠학 강사 인프라의 빈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재 양성 시스템과 현장 실무 교육 시스템, 전문 자격 시스템과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인재 양성 시스템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방법론으로 3단계 인재 양성 시스템을 제안한다.

<표 23> 불교문화콘텐츠학 인재 양성 시스템

단계	명칭	내용	과정
1단계	입문자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기본 이론을 습득하는 단계	학부 1-2학년/ 대학원 석사 1학기
2단계	탐구자	전공의 다양한 이론과 연구분야를 경험 다양한 문화현장을 경험하고 체험	학부 3-4학년 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
3단계	리더	전공의 리더가 되어 후배를 지도 전공 분야의 전문 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 함양	학부 4학년 대학원 석사 3학기 이상

불교문화전공은 지역불교를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여 세계의 다양한 불교문화 전반을 이해하고 한국불교문화의 가치와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이론을 연구한다. 세방화(glocality)의 관점에서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33) 김평수, 박치완(2014), 「문화콘텐츠, 대학원 융합교육의 현재와 미래」, 『인문콘텐츠』 32, 인문콘텐츠학회, pp.113~115.

34) 이재수(2018), 「4차 산업혁명의 시대 VR/AR을 이용한 불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방향」, 『한국불교학』 87, 한국불교학회, pp.394~395.

35) 오재호(2020),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 421, 경기연구원, p.9.

문화현상의 이해해와 분석을 통해 종교학, 문화학을 불교문화에 연결시켜 확장해 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을 도모한다. 불교를 문화현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불교계, 문화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불교문화 전문가를 양성한다.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은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기획, 문화경영 및 마케팅 등을 포괄하는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문화산업계, 지역자치단체, 정부기관 간 협력시스템을 통해 산업 각 분야의 요구에 맞는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네트워크화하여 산업계중심의 대학-지역-종교계-산업계 등 다변화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선발해 인턴십 교육을 강화한다.

불교문화유산전공은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경영해나가는 융합형 불교문화유산 매니저를 양성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재교육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교육형 인재를 양성한다. 불교계 특성화 인력양성시스템을 통해 불교계, 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한 지역문화 클러스트 중심의 프로젝트 구성을 통한 인력을 양성한다.

2) 현장 실무 교육 시스템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불교문화 현장에서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MOU 체결을 통한 산업계-학교-중단 융합형 교육을 진행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974개소이며, 그 가운데 조계종 소속은 787개소로 전체 81%이다.³⁶⁾ 이들 전통사찰은 불교문화콘텐츠학과의 1차 현장이며,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사 등 언론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정보박물관 등 문화산업 현장과 MOU를 체결하여 현장과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을 연결하여 산-학-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현장 전문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교계를 비롯해 산학협력기관의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여 현장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현장 실습 및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향후 ‘(가)불교문화콘텐츠학회’ 활동을 통한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

셋째, 불교문화 산업계 현장 실습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불교문화 산업계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예컨대 현장답사(1학기), 문화산업전문가 초청 워크숍(2학기), 전통사찰, 정보박물관, 불교문화산업 기관 및 관련 업체 인턴십, 불교계 및 공공기관 공모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트랙별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전문 자격 시스템

전공별 자격증 및 취득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관리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불교계 즉 조계종과 연계하여, 일정 현장 실습 및 전문가 멘토링 워크

36) 문화체육관광부>종무>전통사찰 현황(974개소, 2022.03.07. 기준)
ht 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03&pTab=01&pSeq=1581&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

샵을 운영하여 각 전공 별로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3단계 리더 과정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이를 이수하고, 20시간 이상의 멘토링 워크샵 프로그램과 소정의 현장실습을 필수 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 자격증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24> 불교문화콘텐츠학 전공별 자격증 제도(안)

전공	자격증	기본자격	자격요건
불교 문화전공	불교문화 코디네이터	-전공별 학점 이수 -전공 멘토링 워크샵 이수	불교축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불교문화 현장 실습 프로그램 이수
불교 문화콘텐츠전공	불교문화콘텐츠 프로젝트 매니저		불교문화 관련 기관, 언론사 및 업체 현장 실습 프로그램 이수
불교 문화유산전공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 매니저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업체, 전통사찰, 성보박물관 현장 실습 프로그램 이수

불교문화전공은 ‘불교문화 코디네이터’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율 및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이다. 불교축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불교문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공별 학점과 멘토링 워크샵을 이수해야 한다. 불교문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은 반드시 “멘토링, 협업학습과 팀러닝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³⁷⁾을 주요한 내용으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필드프로젝트’를 주요한 모델로 삼아야 한다.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은 ‘불교문화콘텐츠 프로젝트 매니저’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불교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불교문화 관련 기관, 언론사 및 업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공별 학점과 멘토링 워크샵을 이수해야 한다.

불교문화유산전공은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 매니저’의 자격을 부여하는데,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활용 기획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업체, 전통사찰, 성보박물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전공별 학점과 멘토링 워크샵을 이수해야 한다.

4)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네트워킹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연구자의 부족은 교육을 담당할 교수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신광철이 제시한 “문화콘텐츠(학과) 교육 네트워킹”³⁸⁾를 통해 문화콘텐츠학 ‘강의 또는 문제은행’의 공유를 통해 그 간극을 넘어설 수 있다. 문화콘텐츠학의 다양한 전공자들과 산업계 현장의 전문가 및 문화행정가를 아우르는 교육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 과정과 교육의 내용 및 교육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나아가 현장 실습 및 멘토링, 워크샵 등의 입체적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네트워킹’ 기반의 ‘불교문화콘텐츠

37) 김치호(2018), 「문화콘텐츠 산업연계 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14-2, 한국애니메이션학회, p.72.

38) 신광철(2020),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교육의 방향」, 『인문콘텐츠』 59, 인문콘텐츠학회, p.120.

교육 네트워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학계, 불교계, 종단, 유관 문화산업계, 지자체,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협업을 통한 새로운 강의와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AR/VR 기술을 기반의 현장 체험 및 실습이 가능하고, AI 기반을 활용한다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의 융합은 새로운 활로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교문화콘텐츠의 생생한 현장인 전통사찰 974개소 가운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74개소(17.8%)를 제외한 800개소(82.1%)가 지방임을 감안한다면, 현장 실습은 온라인을 통해 장소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력양성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올바른 불교문화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문화콘텐츠학과가 설립되어 문화콘텐츠학의 학문적 토대를 정립하고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해낸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은 문화산업의 성장과 함께 냄비처럼 금방 사그라질 것이라고 우려하던 한류마저도 끊임없이 새롭게 진화하여 그 인기가 날로 용광로처럼 끓어올라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다. 현재 고령화 사회와 종교에 냉담해진 사회적 풍토는 탈종교화가 가속화 되었다. 지난 2014년 불교 인구는 22%였던 것이 현재 16%까지 떨어져 6% 정도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더욱이 출가자 수 또한 급감하는 등 불교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문화적 격변을 겪어 디지털 사회로 강제 전환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종교 간의 갈등과 경쟁이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게다가 불자의 연령 구성으로 보면 노년층 인구 비중이 높고, 전통적인 방식의 신행활동의 경향이 높은 불교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이 시대와 소통하는 문법이 되었고, 디지털 전환의 시대 불교의 대사회적인 접근과 불교적 가치의 확산에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불교문화콘텐츠는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본 논의를 통해 그동안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연구의 지형도는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32편의 석사학위논문 가운데 불교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 70%를 차지할 만큼 불교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는 뜨겁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석사학위를 배출한 대학도 불교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넘어서 골고루 분포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관련 박사학위는 14편이었는데, 장르가 6편(42.9%), 개발 관련이 5편(35.7%)이었다.

등재 학술논문은 81편으로 사회 문화 관련이 41편(50.6%), 활용이 18편(22.2%), 개발, 제작이 11편(13.6%), 장르가 11편(13.6%) 등의 순으로 인문학 관련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불교문화콘텐츠학은 아직까지 토대는 부실하지만,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으므로 불교문화콘텐츠 진흥 전략과 지원책이 시급하며, 그 성과도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불교학 관련 교육환경과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불교학 관련 학과 및 전공은 6개 대학

에 13개가 있다. 동국대를 비롯해 불교 교학과 응용 실천 분야를 융합한 목적과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대학원 과정은 9개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 6, 전문대학원 4, 특수대학원 10개 등 20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2002년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에 ‘문화콘텐츠학과’가 개설되고 2003년 한신대학교에 문화정보학부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가 문을 연 이래로 현재 콘텐츠 관련 학과는 180개로 증가하였는데, 대학은 인문사회계열(60)이 공학계열(17), 예체능계열(32)의 합보다 월등히 높고, 전문대학은 공학계열(28), 예체능계열(33)이 인문사회계열(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대학은 인문콘텐츠 관련이 전문대학은 디지털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3년 불교문화콘텐츠학과 학부과정 교과목을 제안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2021년 동국대학교(WISE) 불교대학은 불교문화콘텐츠전공을 개설하였다. 기초교육과정은 불교와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문교육과정은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구성하였다.

논자는 대학원 불교문화콘텐츠학과와 불교문화전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불교문화유산전공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융합교육을 지향하고 (가)불교문화연구센터와 협력체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방법론으로 인재 양성 시스템과 현장 실무 교육 시스템, 전문 자격 시스템과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제안하였다.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콘텐츠 중심의 불교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미디어나 찬란한 기술로 구현된 기기의 발달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콘텐츠가 없다면, 빈껍데기일 뿐이다. 문화콘텐츠 생태계 구조는 계층(hierarchy)의 관점이 아닌 연결망(network)이어야 한다. 자기 조직화가 가능한 열린 생태계로 대중 스스로가 진화해가는 힘을 믿고, 포교라든지 산업화라든지 특정한 목적을 지나치게 내세워 끌고 가려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화 역량 소통과 공생의 장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만 학문과 교육의 체계적인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불교문화콘텐츠 진흥 시스템이 필요하다. 논자는 일찍이 불교문화콘텐츠 진흥구심점으로 ‘응용기술을 활용하여 표현되는 융복합 콘텐츠 창작진흥기관’을 제안한 바 있다. 제도의 정비와 종단 내에 전문성을 확보한 핵심 인력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흥 시스템은 곧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교육 및 연구역량과 결합하여 교육체계와 협력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발전소가 될 것이다.

셋째, 참여, 공유, 개방의 불교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불교문화 관련 콘텐츠의 성과물을 계속 축적하여, 불교문화 콘텐츠 종합정보가 집적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구축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가 토대가 되어 국내외 자원 및 인적, 물적, 정보의 집적·교류·활용의 허브로 국가 지식정보 플랫폼 등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공유, 개방을 전제로 공공 영역은 물론 다양한 아카이브와 연계될 목표로 ‘오픈 퍼블리싱 플랫폼’으로 활용과 공유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스마트 미디어에 최적화된 다양한 포맷의 융복합 콘텐츠의 생산과 향유를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³⁹⁾

넷째, 불교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불교적 메시지를 확산하는 불교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의 생태계 활성화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대표적 플랫폼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한 콘텐츠법사(크리에이터) 지원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불교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콘텐츠전문가를 발굴·양성하고, 불교문화콘텐츠 생산과 확산을 위한 종단-학계-산업계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들은 불교문화콘텐츠 교육체계의 멘토와 현장교육과 연계하고, 불교문화콘텐츠 강사 인력풀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가치를 확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불교문화콘텐츠의 발전과 이를 이끌어 낼 교육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연대 및 협력의 길에서 함께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39) 이재수(2014), 「스마트 미디어 시대, 불교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불교평론』 60, 불교평론사.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492>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체계와 방법」에 대한 논평

원영상(원광대학교)

1. 매우 유의미한 연구라고 판단한다. 불교는 종교인 동시에 문화로서 한 국가, 한 지역의 민중들의 역사와 함께 그들의 심성을 담아온 그릇 역할을 해왔다. 최근 이웃종교들이 불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도외시한 측면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 동시에 불교가 가진 축적된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다시 한 번 종교 고유의 통합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의 문화적 유산 또한 같은 입장에서 개현된다면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연과 함께 불교 고유의 문화적 창달력을 어떻게 드높일 것인가를 또한 깊이 고민하게 하고, 여러 현대적 대안 중에서도 매우 크고 넓은 함목적성을 갖는다.

2. 발표자는 불교문화콘텐츠학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 대학원에서 불교문화콘텐츠의 연구와 응용을 위한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제안함으로써 이미 이 분야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해오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대학원 불교문화콘텐츠학과와 불교문화전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불교문화유산전공의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연구센터와 협력체계,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방법론으로써 인재 양성 시스템과 현장 실무 교육 시스템, 전문 자격 시스템과 불교문화콘텐츠 전문가 네트워킹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교문화콘텐츠학의 교육목표에 대해서도 불교문화의 공공성 증진, 불교의 종교성 확장을 위한 사회적 소통 지향, 불교문화의 대중성 회복에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불교문화콘텐츠학 교육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콘텐츠 중심의 불교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불교문화콘텐츠 진흥 시스템, 참여·공유·개방의 불교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불교문화콘텐츠 크리에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매우 다양하고 중층적인 차원에서 발전 구도를 모색하고 있다. 아직은 확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불교문화콘텐츠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발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불교의 역사는 창의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불조사들의 깨달음에서 나온 고준한 언설이 기반이 되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불교문화라고 하는 삶의 영역이 개척된 것이다. 말하자면 불교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형에서 유형으로 가치화된 실재의 현상이다. 따라서 불교문화의 영속성, 불교문화콘텐츠의 지속적 생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원의 재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적 세계를 가진 제불조사들의

궁극적인 콘텐츠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이다. 유형의 근원인 무형의 자산이야말로 불교문화콘텐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2) 오늘날 세계는 혼돈에 빠져 있다. 특히 과학과 자본은 지구를 거덜 낼 정도로 약진하며 인류의 삶의 환경을 제약하고, 마침내 과속으로 치달을 정도로 맹목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야말로 이러한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처방할 수 있는 약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욕망으로 점철된 인류의 다양한 재앙에 대한 불교의 처방 또한 불교문화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불교문화콘텐츠가 단순히 현재의 다양한 문화적 소비 수준에 머문다면 이 또한 과학과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현실을 인도하면서도 초월하여 삶을 계도(啓導)하는 동시에 문명을 바르게 이끌 불교문화콘텐츠로서의 기능은 무엇인지 고견을 들려주었으면 한다.

3) 현실적으로 불교계 대학이 아니면 불교문화콘텐츠학을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역사성을 지닌 한국문화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재인 점을 감안할 때는 당연히 불교문화를 콘텐츠화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논평자가 일하고 있는 원광대에서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하고자 했다가 거부당한 일이 있다. 동국대의 여러 동료 연구자들의 도움을 빌려 이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학과의 교수들이 거부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한국인에 의해 형성된 기층문화로서의 불교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을 느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3. 매우 뜻 깊은 발표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논평자 또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동질감을 깊이 느꼈다. 향후에도 이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여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소중한 학문 분야를 깨우치게 해준 발표자 이재수 선생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박종천(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I. 머리말: <종교와 영화> 강좌 논의의 회고와 분석

‘종교와 영화’는 20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의 문턱에 한국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입성하였다. 실제로 ‘종교와 영화’ 강좌는 1999년 한신대학교에 처음 개설된 이후(신광철, 2003: 64) 2010년대 이후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 차례로 개설되어 현재는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강좌를 운영중이다.

‘종교와 영화’ 강좌의 개설과 운영은 ‘종교와 영화’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 종교학자들은 ‘종교와 영화’ 강좌를 진행하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결과물은 일정한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비해 정작 ‘종교와 영화’ 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서구 종교학계에서 ‘종교와 영화 교육’을 기획 주제로 다룬 단행본이 발간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Gregory J. Watkins, 2008)

한국에서 ‘종교와 영화’ 강좌의 등장과 발전은 학문의 대중화 요구에 따른 종교학의 ‘문화비평’적 가능성 실현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종교영화의 ‘문화콘텐츠’적 가치 재발견에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21세기부터는 인문학이 문화콘텐츠학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종교와 영화’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종교와 영화’ 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한국 종교학계에 본격적으로 산출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21세기 초에는 ‘종교와 영화’를 강의하는 종교학자들이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문화비평적 종교학 연구로서 ‘종교와 영화’ 관련 기획 주제를 발표하거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한신대 종교와문화연구소에서는 ‘종교학적 상상력과 영화: 역사·기억·현실’(2003), ‘신화와 콘텐츠’(2016), ‘한국영화 속의 종교적 재현’(2016) 등 세 차례에 걸쳐 ‘종교와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획 특집의 학술대회를 열고 그 결과물을 『종교문화연구』에 게재하였다. 무속의 굿과 치유능력을 다룬 한국의 무속 영화, 인공지능과 영혼을 다룬 미국의 SF영화, 비종교적 소재의 영화를 연금술적 상상력과 제의적 체험의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한 연구 등이 『종교문화연구』 5(2003)에 기획특집으로 실렸고(신광철, 2003b; 김운성, 2003; 박종천, 2003), 신화와 영화를 문화콘텐츠를 매개로 삼아 연계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종교문화연구』 26(2016)에 게재되었으며(신광철, 2016; 박종천, 2016), 한국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수난’의 이미지 분

석과 공포의 확산인 소문의 종교적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종교문화연구』 27(2016)에서 부각되었다(이나리, 2016; 이창익, 2016)

나아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종교 전통을 중심으로 종교와 영화 관련 주제를 개인적으로 천착한 학자들도 나타났다.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한 신광철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 무속, 신종교를 망라하여 한국 종교 영화의 다양한 양상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고(신광철, 2000a; 신광철, 2000b, 신광철, 2002a; 신광철, 2002c; 신광철, 2003b; 신광철, 2004), 박종수는 한국 종교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설명하였으며(박종수, 2016), 박종천도 개신교, 불교, 무속, 신종교 등의 한국 종교를 다룬 구체적인 종교 영화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박종천, 2005; 박종천, 2019; 박종천, 2020), 민순의는 한국 기독교 영화 <밀양>에 대해 분석하였으며(민순의, 2007), 안신은 신종교 영화를 연구하였고(안신, 2010), 이종승은 한국 무속과 판타지 영화 장르를 연계하여 접근하였다.(이종승, 2005) 이외에도 박종천(박종천, 2020), 최화선(최화선, 2015), 이창익(이창익, 2002; 이창익, 2016) 등에 의해 다양한 종교적 주제와 영화적 표현 방식을 연계하여 분석한 종교 영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와 영화의 관계와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학과 영화학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서도 출간되었다(박종천, 2020).

그러나 종교영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드물다. 영화가 종교교육에 유익한 매체이며 영화를 종교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한 연구(신광철, 2003a)와, 다문화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영화 활용에 접근한 연구(안신, 2010) 등이 문자 텍스트를 넘어서서 상징적 영상-텍스트인 영화를 통해 종교교육의 충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으며, 최근에는 영화 보기가 종교 개념을 재구축하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최화선, 2015; 최화선 2016)

그러나 이들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에서 교양 교육으로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은 아직 충분하게 탐색되지 못하였다. 이전까지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종교와 영화> 강좌의 개인적 강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에 들어와서 20여년간 한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종교와 영화> 강좌의 개설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로 <종교와 영화>를 강의했던 강사들의 강의 경험과 강의계획서를 분석함으로써 <종교와 영화> 강좌의 운영 방식의 특징을 검토한 뒤에, 그 경험에서 걸러낸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바람직한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국 대학 내 <종교와 영화> 교육의 현황과 양상

한국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와 영화> 강좌는 한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모두 <종교와 영화>라는 제목의 교양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신학교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신대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특정 종교와 무관하게 설립되고 운영되는 국립대학교 혹은 사립대학교다. 다만 한신대학교는 다른 교단 신학교들에 비해 신학적 포용성이 넓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단 신학교가 종합대학으

로 확대된 경우이고 <종교와 영화>를 개설한 종교문화학과는 신학과와는 달리 객관적 종교 연구와 교육을 지향하므로 신학교의 교단 교육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외에도 대신대학교에서 개설한 <기독교와 영화>나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김효숙 교수가 강의하는 <기독교교육과 영화> 등이 있는데, 이런 강의들은 한신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개설 이후에 그 영향을 기독교에 특화한 것으로 보이며 극소수 강좌 개설이 있으나 지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 대학에서 <종교와 영화>는 특정 종교 전통의 신학이나 교학을 기반으로 삼고 거기에 충실하게 봉사할 것을 강조하는 특정종교 전통 중심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종교학의 교양교육으로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종교와 영화> 강좌가 먼저 개설되어 운영중인 서구권과 일정하게 견줄 만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와 서유럽 등에서는 <종교와 영화> 강좌가 종교학과나 신학과는 물론이고 영화학과나 인문학부에서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영화>를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교양강좌와 전공강의들이 운영중인데, 서구권 대학교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와 영화> 관련 강좌들이 <종교와 영화>라는 제목의 강의 외에도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불교, 이슬람 등의 종교 전통과 세계종교(world religions), 미국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 등의 종교 전통들과 신화, 의례, 대중문화, 윤리, 미디어 등의 종교 연관 주제들을 연계시키면서 심화하고 특성화하는 <종교와 영화> 관련 주제의 특화-심화형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다.¹⁾ 이는 한국 대학에서 <종교와 영화>를 교양과목으로만 개설하고 그 주제를 심화하여 특성화한 전공과목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종교 영화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미국에 비해 역사도 짧고 전공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종교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다양한 심화 강좌가 개설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러한 양상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²⁾

1) 한신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한국 내 <종교와 영화> 강좌의 산실

한국에서 <종교와 영화> 강좌는 한국의 대학교 중 가장 먼저 교양 강좌로 <종교와 영화>를 개설하였다. 실제로 한신대학교에서는 신광철교수가 1999년 1학기 교양강좌로 개설하면서 최초로 대학교육에서 <종교와 영화> 강좌를 시작하였다. 특히 개설 첫 해인 1999년 1학기에는 107명부터 223명에 이르는 대형강좌로 3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999년 3개 강좌 555명, 2000년 7개 강좌 616명, 2001년 7개 강좌 656명, 2002년 7개 강좌 648명, 2003년 7개 강좌 524명 등 2000-2003년까지 매년 1학기마다 7강좌씩 500여명에서 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있는 강좌로 운영되었으며,(신광철, 2003: 64-66 참조) 이후에도 한신대학교의 강좌는 여러명의 강사들이 중형 강좌와 소형 강좌를 함께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한동안 상당한 인기를 끌며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본 강좌의 모체가 되는 종교문화학과에서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학과의 쇠퇴에 따라 본 강좌도 유명무실해졌다.

1) <https://www.filmandreligion.com/syllabi/> 추후 분석 보강 예정.

2) 이에 대해서는 3장의 서구권 종교와 영화 교재 분석 참조.

그러나 한신대학교의 <종교와 영화>는 이 주제와 관련된 전문 강사군의 배출, 대학교의 교양강좌로서 <종교와 영화> 강좌 개설 확산, 해당 주제의 학문 연구 활성화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분야의 교육과 연구의 활성화 및 제도적 토대 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종교와 영화 강좌 개설에 따른 전문 강사군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였다. 한국에 <종교와 영화> 강좌를 최초로 개설한 신광철 교수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1999년 1학기 3강좌로 운영했던 <종교와 영화> 강좌는 2000년 이후 매학기 7강좌씩 지속적으로 개설하면서 신광철 교수를 비롯하여 이동진, 최화선, 조현범, 하현애, 이창익, 이유나, 노희정, 고병철 등 종교학을 전공한 전문 강사진을 구축하였다.

둘째, 한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전문 강사진들은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의 영화평론가 이동진을 제외하면 모두 종교학 전공 연구자들로서 활동하면서 교육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존에는 영화학자나 영화평론가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가끔씩 다루던 ‘종교와 영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한신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강좌들은 학생들에게 종교와 영화 교육을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영화 연구 활성화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한신대의 <종교와 영화> 강좌들은 대학교의 교양강좌로서 <종교와 영화> 강좌 개설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한신대학교에서 <종교와 영화>의 강사들과 이와 연관된 <영화와 문화> 등의 강의를 한 필자도 서울대학교의 <종교와 문화> 강의를 맡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강의 내용의 반쯤을 본래 <종교와 영화>에서 다룬 만한 내용으로 변화시켰으며, 필자에 이어 2010년 이후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종교와 문화> 강의를 <종교와 영화>로 제목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는 역시 한신대학교에서 <종교와 영화>를 강의했던 최화선박사가 서울대학교에서 동일한 강좌를 담당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의 <종교와 영화>의 영향을 수용한 송현주교수가 순천향대에서 2006년에 <종교와 영화> 강좌를 개설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자 역시 한신대학교에서 <영화와 문화>를, 서울대학교에서 <종교와 문화>를, 건국대학교에서 <신화와 영화>를 강의했던 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와 영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중이다. 요컨대, 한국의 대학들에서 개설되는 <종교와 영화> 강좌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의 종교학자 혹은 영화평론가로서 한신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강좌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중형 강좌의 심화와 지속적 전개

한신대학교에 이어 <종교와 영화>가 교양강좌로 개설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다. 한국 종교학의 본산인 서울대학교에서는 <종교와 영화>가 개설되어 현재 교양교육 과정 중 ‘학문의 세계’ 중 ‘문화와 예술’ 영역에서 <종교와 예술>, <현대문화와 기독교> 등과 함께 교양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종교와 영화>가 개설되기 전인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박종천이 <종교와 문화>의 절반의 분량을 <종교와 영화> 내용으로 강의를 했으나, 2010년대 이후에 와서 <종교와 문화> 강좌를 <종교와 영화> 강좌가 본격적으로 대체했다.

서울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강좌는 한신대학교에서 <종교와 영화> 강좌를 진행했던 경험을 지닌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종교학자 최화선 등에 의해 201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뒤에 방원일 등이 잠시 강의를 맡기도 했으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최화선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종교와 영화>는 대체로 80-100명 정도의 중형 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시험외에 별도로 강의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화선의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 강사 대신 학생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3) 순천향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소규모 학생 참여형 강좌 운영 모델

순천향대학교에서는 송현주교수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종교와 영화>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원을 매학기 45명으로 제한하여 소형 강좌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인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자발적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참여형 강좌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기말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 중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이에 따라 강사는 자연스럽게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전에 미리 준비한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깊이있는 사유의 실험을 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멘토(mentor)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겸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 초입에 종교 정의와 종교와 영화의 체험적 유사성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 토대 위에서 매주 한편의 영화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감상과 분석을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자유발표도 권장한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강사의 면밀한 고려에 따라 종교전통별 균형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택한 9개의 영화를 갖고 분석하도록 유도하면서 해당 영화에서 다룬 만한 주제들을 강의계획서에서 미리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학생 참여형 강좌의 모범을 잘 보여 주고 있다.

4) 고려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종교와 영화>의 대형 교양 강좌 모델

고려대학교에서는 전임교수들이 핵심교양 과목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4년 가을에 핵심교양 과목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핵심교양의 세계의 문화 영역에 <종교와 영화> 강좌 개설을 신청함에 따라, 필자의 투병생활로 인해 개설하지 않았던 2016년 1학기를 제외하고, 2015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종교와 영화> 강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종교학 관련 전공 학과가 없는 관계로 교양교육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으나,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늘어나서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 캠퍼스에서 가장 큰 우당교양관의 대강당에서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학기 개설 당시 174명, 2015년 2학기 163명, 2016년 2학기 410명, 2017년 1학기 413명, 2017년 2학기 347명, 2018년 1학기 420명, 2018년 2학기 264명, 2019년 1학기 413명, 2019년 2학기 411명, 2020년 1학기 412명, 2020년 2학기

412명, 2021년 1학기 363명, 2021년 2학기 366명, 2022년 1학기 415명, 2022년 2학기 415명, 2022년 겨울학기 83명 등의 학생들이 이수하였다.

2018년 2학기에는 학생수를 줄이려고 시간대를 조정하고 대강당에서 좀더 작은 규모의 강의실로 옮긴 결과 264명으로 학생수가 줄었으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최대 4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양관의 대강당으로 옮긴 결과 다시 410명대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420명 정원의 대강당이 모두 차지 않고 410명대를 유지하는 것은 수강신청 단계에서 무조건 국내외 교환학생 몫으로 전체의 5%인 20명이 자동적으로 지정되고 일부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에는 학생들의 특별 요청에 따라 겨울 계절학기를 인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여 개설한 결과 신청자 수가 83명이 되었다. 계절 학기를 제외하면, 한 학기에 평균 410-420명 정도의 인원이 수강하고 있으며, 1년이면 820-840명 정도의 인원이 수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의 <종교와 영화>는 하나의 강좌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강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명의 강사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강좌를 진행하면서 수강신청 인원이 분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한신대학교와는 달리, 고려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강좌는 한 명의 교수가 한 학기에 하나의 대형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 강좌는 학생들의 요청을 반영하면서 수강인원이 증원된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과제 발표와 토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다. 2015년 개설 당시에는 174명과 163명이었기 때문에 조별로 종교와 영화를 다루는 영화들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나, 최대 420명 정원의 대강당의 수업은 그러한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생략한 대신에 개인별로 종교 영화의 영상 편집 혹은 분석 과제물을 받거나 두 번의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있다.

3. <종교와 영화> 강좌의 구성과 강좌 개발의 방향

1) 한국 내 <종교와 영화> 강좌의 구성상의 특성

현재 한국 대학의 <종교와 영화> 강좌는 대체로 강사의 개인 취향과 학생들의 관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율되는 양상이 강한 편이며, 이에 따라 교수 혹은 강사의 개인적 관심에 따라 강의의 규모나 성격의 편차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종교와 영화> 강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강좌의 구성에서 <세계종교>의 강의처럼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을 포괄하는 지역별 안배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종교 전통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둘째, 강의의 구성상 종교학을 비롯한 다양한 인문학 이론에서 중시하는 주제들에 걸맞는 다양한 영화들을 선정하고 있으며, 영화의 선정과 강의 내용면에서도 종교전통이나 지역보다는 주제별 구성이 가장 두드러진다. 셋째, 주제별 선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이론적 관심이 반영되므로, 대체로 학생들에게 종교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관점이나 방법을 익히도록 영화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방식은 서구권 대학의 강좌와 일정하게 견줄 만하다. 서구권 대학들에서는 한국과 같은 방식도 있지만, 종교전통별 접근을 중심으로 하거나 종교전통별 접근과 주제별 접근을 결합시키지 않고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2012년 가을학기 <영화 속의 세계 종교와 문화(World Religions and Cultures in Cinema)> 강좌는 영화로 보는 세계종교문화입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종교전통별 분류를 근간으로 세계종교의 문화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종교영화를 활용하고 있으며,³⁾ 개리 스팅스(Garry Sparks) 교수가 진행하는 조지메이슨대학교의 <종교와 영화(Religion & Film)> 2022년 가을학기 강좌는 전반부 2/3는 기독교 (2주간), 유대교 (2주간),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아메리카 원주민과 초기 국가 (2주간) 등으로 종교전통별로 구성한 반면, 후반부 1/3은 윤리, 공동체 및 구원자(2주간), 영웅의 여행, 성서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악의 문제, 은총과 정의와 본성, 일상적인 인간과 다른 영적 캐릭터들, 화해 등을 한 주차씩 다룬다.⁴⁾

이를 위해 미국 대학의 종교학과에서 개설되는 <종교와 영화> 강좌들은 대체로 매주 주차별로 학생들이 감상할 영화와 영화의 분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읽을거리를 강의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미리 제공하고 있는데, 읽을 거리는 종교영화 분석 전문 논문, 종교영화 관련 단행본, 성경을 비롯한 종교 경전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취하면 영화의 매체적 특성과 형상화 방식에 대한 분석은 거의 다루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전통과 주제 및 관점과 방법론의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강좌의 구성방식은 종교와 영화 교재의 구성과도 일정하게 연관된다. 실제로 종교와 영화 교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교 전통별 접근, 주제별 접근, 방법론적 접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라이든(John C. Lyden)이 편집한 종교와 영화에 대한 개설서는 총4부의 구성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의 교재로 쓸 만큼 내용이 풍부하다. 1부에서는 서구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종교와 영화가 맺은 관계의 역사를 서술하였고, 2부에서는 특정 종교 전통별로 영화 속에서 이루어진 종교인들의 묘사를 논의하였으며, 3부에서는 ‘종교와 영화론’에 대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소개하였고, 4부에서는 ‘종교와 영화론’에 유용한 범주들을 설명하였다. (John C. Lyden, 2009 참조)

먼저 1부에서는 1895년 이후 시작된 무성영화 시대의 영화, 1930년부터 1967년까지 이어진 검열의 시대, 1967년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영화, 1960년 이후 근대 개신교의 영화에 대한 접근 등을 다루었는데, 영화의 시작이 서구에서 비롯되었고 종교영화가 그리스도교의 예수 영화와 성서 영화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런 접근은 종교와 영화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서구의 영화와 서구의 그리스도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 등에 대한 일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은 박종천, 2020: 38-99 참조.) 이밖에도 이 책은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포스트식민주의적 종교 습합주의, 일본 종교, 신종교 등 종교전통들을 아우르는 한편, 페미니즘, 시청자 비평, 문화이론과 문화 연구, 정신분석, 신학적 접근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내러티브(narrative), 구속(redemption), 종말론

3) <https://www.filmandreligion.com/syllabi/jaoudi-world-religions-and-cultures-in-cinema-2012> Dr. Maria Jaoudi의 2012년 가을학기 강의계획서 참조.

4) https://masonkorea.gmu.edu/courses/reli236/course_sections/78454 참조.

(apocalyptic), 영웅과 초영웅(seperhero), 공포(horror)와 악마(the demonic), 예수와 그리스도-유형, 도상학(iconography), 희생(sacrifice), 윤리(ethics)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 출판된 종교와 영화 교과서인 솔라노의 『종교와 영화 입문』에서 확인된다.(Jeanette Reedy Solano, 2022) 이 책 역시 종교와 영화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종교와 영화’에 대한 서론, 종교와 영화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으로서 영화 속에서 차원과 브리콜라주, 힌두교, 유대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등 영화 속 세계종교 탐색, SF, 코미디, 공포, 드라마, 순례여행, 다큐멘터리 등 영화 장르에 따르는 종교와 영화론 연구, 악마, 구원자, 유령, 악과 고통, 성과 인종, 구원과 치료, 카르마와 환생, 죽음과 사후생 등의 주제들을 병행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최근 출판된 『영화 속 종교의 재현』은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종교적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교학과 영화학의 유기적 결합 양상을 특정 종교영화 분석을 통해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Tenzan Eaghll & Rebekka King, 2022) 한국의 <종교와 영화> 강좌는 특정한 영화를 소재로 삼아서 다양한 종교적 주제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앞의 두 교재보다는 『영화 속 종교의 재현』 방식에 가깝다. 다만 앞의 책들처럼 지역이나 전통의 균형과 안배를 기했다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다.

2) 한국의 <종교와 영화> 강좌 목표와 실제 운영 방식

한편, 한국의 <종교와 영화> 강좌는 대체로 학생들의 실존적 관심에 부응하여 강좌가 기획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주제별 구성을 하는 접근방식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그러한 양상은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를 통해서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한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에서 개설했거나 개설중인 강좌의 강의계획서 중에서 강좌의 개요나 수업의 목표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① 신광철, 1999년 1학기 강의계획서

강좌 목표 및 내용: 종교와 영화는 ‘구원을 향한 질주’라는 점에서 접점을 지닌다. ‘영화 만들기’는 ‘구원을 향한 길’에 비견될 수 있으며, ‘영화 읽기’는 ‘구원에의 추구’에 비견될 수 있다. 영화는 또한 다양한 종교적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좋은 채널이기도 하다. 본 강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영화 체험이 지니는 구원을 향한 길로서의 함의를 생각해 보는 한편, 스크린에 비친 거룩함의 이미지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② 이창익, 한신대학교 2008년 1학기 강의계획서

1. 영화를 자료로 하여 종교를 발생시키는 삶의 여러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 일상에서 종교에 이르는 우회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3. 현대문화 속에 숨어 있는 <종교적인 것>의 문법을 익히는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③ 방원일, 서울대학교 2017년 겨울 학기 강의계획서

수업 목표: 영화는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는 강력한 매체이며, 종교학은 종교가 인간의 경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영화의 만남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수업은 영화에 반영된 인간의 종교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종교 전통들을 만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종교학 이론들을 배울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신의 담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통해 전개된다는 점을 영상자료를 통해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종교’란 무엇인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종교에 대한 지식은 제한되어 있고 특정 관점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영화는 종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재료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이 수업은 영화를 통해 주어진 재료들을 종교문화 성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가르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영화에 담긴 종교의 현실을 재료로 해서 종교란 무엇이고 종교를 갖는 인간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④ 최화선, 서울대학교 2022년 2학기 강의계획서

이 수업은 영화를 통해 1) 종교학의 주요 주제들을 검토해보고, 2) 종교 현상과 영화 보기/영화 만들기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매주 다양한 영화들을 통하여 종교적 세계관, 신화와 의례의 구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 종교적 공동체 등을 논의해 볼 것이며, 영화를 통해 드러나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다양한 면모와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⑤ 송현주, 순천향대학교 2022년 2학기 강의계획서

- 수업의 개요: 종교와 영화는 인간의 운명과 삶의 의미를 묻고 그 해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종교가 상징과 이미지,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영화도 신화적 상상의 산물로서 세계에 대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 수업은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종교문화의 양상을 영화를 통해 살펴본다.

- 수업의 목적 및 특성: 1) 영화를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의미, 다양한 종교문화를 비교·이해한다. 2)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발표와 토론, 참여를 권장한다. 3) e-class 통해 공지사항, 과제물, 의견을 공유한다.

⑥ 박종천, 고려대학교 2022년 2학기 강의계획서

- 강의 개요: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물음을 영화라는 창을 통해 문화적으로 탐색하는 강좌로서, 신화, 의례, 구원, 영웅, 시간, 기억, 갱신, 고통, 정성, 타자, 구도, 환상, 죽음, 종말, 금기, 권력, 행복, 진실, 구속, 자유, 정의, 사랑, 환상, 변신 등의 종교적 주제를 영화적 표현을 통해 음미하고 해석하는 비평적 능력을 배양한다. 강의는 종교학의 관점과 영화학의 방법론을 융합하여 종교적 소재를 담은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실례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학습목표: 1. 한국과 세계의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도모한다. 2. 영화의 시간, 공간, 인간을 드러내는 몽타쥬, 미장센, 서레이드 등 영화적 문법을 습

득한다. 3. 종교적 주제의 영화적 표현과 영화에 대한 종교문화적 해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합적 이해를 통해 세계문화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위 강의계획서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서 <종교와 영화>의 강좌 목표는 대체로 학생들의 실존적 관심에 부응하여 종교와 영화가 지닌 구조적-기능적 유사성 혹은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실존적 삶의 의미나 문제 상황을 극복할 만한 구원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화비평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런 인식에 따라 영화는 종교적 인간의 삶의 경험과 문화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자연스럽게 종교학을 포함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화비평적 안목을 배양시키게 된다.

다만 다른 강의계획서들과는 달리, 최화선이 언급하는 ‘종교현상과 영화보기/만들기의 점점 모색’과 박종천이 강조하는 ‘종교학의 관점과 영화학의 방법론을 융합하여 종교적 소재를 담은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실례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종교적 주제의 영화적 표현과 영화에 대한 종교문화적 해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합적 이해를 통해 세계문화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강의 목표는 종교적 주제를 영화 속에서 탐색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 종교‘와’ 영화의 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별성이 있다. 이는 영화의 매체적 특성과 문법을 최대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서 종교적 주제나 세계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을 해명하는 연구와 교육을 지향한다. 예컨대, 시간, 공간, 인간의 차원을 동일하게 종교와 영화에 적용하여, 신화나 연속성화, 성소와 성지, 의례 등의 종교적 삼간 분석과 몽타쥬, 미장센, 서레이드 등의 영화적 삼간 분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융합적 접근은 이런 관점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종천, 2020 참조)

한편, 한국 내 <종교와 영화> 강좌는 강사들의 취향에 따른 전문적 주제들을 특정한 관점에 따라 배치하면서도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다. 앞의 강좌 구성상의 특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강좌 운영상의 특징은 강좌들이 대체로 일방적인 강의를 지양하고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 안목을 익히는 한편, 학생들의 실존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과제물의 작성과 발표를 권장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한신대학교에서 최초로 강의를 개설했던 신광철교수의 1999년 1학기 강의계획서부터 대부분의 강좌들이 종교영화에 대한 주제 탐색 보고서를 과제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종교와 영화> 강좌는 종교적 소재나 주제를 영화적으로 표상하고 재현하는 종교(적) 영화에 대한 접근을 하는 만큼 종교적 세계관과 상징과 더불어 영화적 매체의 표상 문법에 대한 이해를 아우르는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영화가 시작된 유럽과 미국은 물론 동아시아, 인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을 포괄하면서 그리스도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신도, 샤머니즘, 유교, 도교, 신종교 등의 다양한 종교 전통들을 아우르는 한편, 예수영화를 비롯한 좁은 의미의 종교영화는 물론 블랙 코미디, 멜로 드라마, SF영화, 공포영화, 다큐멘터리, 만화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화학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종교학, 신화학, 의례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서발턴학 등 다양한 현대학문의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물론 한 주에 3시간 분량의 강좌를 운영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지역, 종교전통, 영화장르, 접근방식을 다 포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부족하나마 일정한 균형의 안배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강사의 일방적 강의보다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장점이 있는 소형 강좌나 중형 강좌의 경우에는 지역적 안배, 종교전통별 균형, 영화장르별 취사선택, 접근방식에 따른 구성 중에서 한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 가능한 영화 리스트를 열거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거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한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순천향대학교의 소형 강좌가 학생 참여형 강좌로서 강사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의 과제물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고려대학교의 대형 강좌는 강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평가에서는 과제물보다는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하여, 한신대학교나 서울대학교의 중형 강좌들은 대형 강좌처럼 강사의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과제물과 시험을 병행하면서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혼합형으로 보인다.

3) 종교학과 영화학의 융합적 강좌 구성: 2020년 2학기 이후 고려대학교의 대형 강좌

이에 비해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가 힘든 대형 강좌의 경우에는 강사가 영화학과 종교학의 중요한 이론과 접근방식을 설명한 토대 위에서 세계의 다양한 지역, 종교전통, 영화장르, 접근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들을 주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일정하게 균형을 취할 수 있다. 예컨대, 멜로 드라마와 역사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지닌 영화 <박하사탕>에 나타난 연속적 플래시백의 영상적 구성방식을 신바빌로니아학파의 신화-의레이론과 연행적 의레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살인의 역사적 기억을 그리스도교적 원죄 개념을 통해 이해하면서 고통스러운 원죄의 시간을 역행하여 소거하는 제의적 영화체험으로 설명한다면 한국 지역, 그리스도교 전통, 멜로-역사 드라마 장르, 연속적 플래시백 기법, 신화-의레이론과 연행적 의레이론의 접근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종교영화를 분석하고 설명하면서 종교적 소재나 주제를 영화적으로 표상하고 재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 증진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종교학과 영화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융합적 강좌 구성의 대표적 사례로서 2020년 2학기 이후 고려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사례가 있다. 필자는 이 분야에 대해 10여년간 연구하고 강의한 경험을 반영하여 2020년 하반기에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 -종교와 영화의 세계-』(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을 간행하였으며, 이것에 따라 2020년 2학기부터 학생들의 과제물 작성 및 발표와 토론 방식을 대규모 강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리고 교재의 구성을 상당히 반영하여 <종교와 영화> 강좌를 종교학과 영화학의 유기적 융합 강좌로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2020년 2학기 이후 새롭게 재구성한 강좌의 제목, 학습목표, 학습 내용은 아래와 같이 예시를 제안할 수 있다. 실제로 매주 3시간씩 16주차 강의를 진행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혹은 시험 대체 과제물 제출을 제외하면 최대 14주차까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

에 14주차로 구성하였다. (괄호 안에는 주교재의 해당 장을 표시했으며 실제 강의안에는 심화학습을 위해 연관되는 참고문헌이 추가되어 있다.)

1주차. 종교 이미지와 영상문화 (교재 1장)

- 학습목표: 종교와 영화의 구조적 특성, 매체적 기능, 상징적 표상방식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 (1) 종교와 영화의 통과의례적 기능: 초월적 영성의 동굴, 상상적 성찰의 동굴
- (2) 영화적 시선: 아이튠과 헤드튠
- (3) 영화적 시선과 종교적 시선: 카메라의 앵글과 종교적 위계질서
- (4) 종교와 영화의 상징적 표상방식: 우주산과 우주수의 앵글과 스펙터클
- (5) 종교와 영화의 시각적 구조와 공간적 구도: 성스러운 프레임의 기호학
- (6) 종교와 영화에 나타나는 소리와 색채의 현상과 심리적 기능

2주차. 영화의 매체적 특징과 영화문법의 삼간 (교재 1장)

- 학습목표: 영화의 매체적 특징과 영상화 방식을 이해하고, <모던 타임즈>, <박하사탕>, <서편제>, <시민케인>, <황금광시대> 등의 실제 영상 분석을 통해 영화문법의 삼간(三間)인 시간-몽타주, 공간-미장센, 인간-서레이드에 대해 숙지한다.

- (1) 영화의 정의와 매체적 특성 및 영화이론
- (2) 몽타주: 영화의 시간
- (3) 미장센: 영화의 공간
- (4) 서레이드: 영화의 인간

3주차. 종교문화의 삼간과 이야기, 이미지, 몸짓의 상징문화 (교재 1장)

- 학습목표: 영화문법의 삼간에 대응하는 종교문화의 삼간인 시간-이콘의 연속성상화, 공간-중심상징의 성소, 인간-의례적 몸짓을 이해한다.

- (1) 거룩한 시간을 구성하는 신화적 몽타주: 경전의 몽타주, 이콘의 연속성화, 팔상도, 십우도
- (2) 거룩한 공간을 성별하는 상징적 미장센: 중심상징의 성소, 정위적 공간과 유토피아적 공간
- (3) 이야기와 이미지로 구현되는 의례적 서레이드: 성지순례, <십자가의 길> 사례 비교 분석

4주차. 종교영화의 역사와 유형 (교재 2장)

- 학습목표: 다양한 종교의 정의와 특성을 이해하고 종교와 영화의 관계 양상 및 종교영화의 역사와 유형을 습득한다.

- (1) 종교의 정의와 특성: 종교의 어원과 의미, 대표적인 종교의 정의와 정의별 특징
- (2) 종교와 영화의 관계: 종교영화의 역사, 종교와 영화 연구의 전개
- (3) 종교영화의 유형: 대표적인 종교영화의 유형론적 접근 방식 고찰, 필자의 상상-고백적, 사회-비평적, 상상-표현적 종교영화론 설명

5주차. 예수 영화: 예수의 재현인가, 그리스도의 재전유인가 (교재 3장)

- 학습목표: 종교영화의 효시인 예수 영화를 수난극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형태의 '신앙-재현적 예수 영화'와 비신화화와 재신화화의 재전유를 추구하는 '비평-상상적 그리스도 영화'로 나누어 영화의 소재와 주제, 유형과 특징, 영상화 방식과 사회적 맥락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이해한다.

(1) 수난극과 예수영화: 수난극으로부터 비롯된 예수영화의 전형성 분석

(2) 신앙-재현적 예수 영화에서 비평-상상적 그리스도 영화로: <왕중왕>, <마태복음>, <몬트로올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등 실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예수 영화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함.

(3) 예수 영화의 유형과 영화기호학적 분석: 종교적 태도에 따른 예수 영화의 기호학적 설명

6주차. 신종교영화와 다큐멘터리: 익숙한 거울인가, 낯선 거울인가 (교재 4장)

- 학습목표: 신종교 개념과 신종교영화와 신종교 다큐멘터리의 특징과 경향을 습득하고 주변종교와 대안종교의 관점에서 신종교의 문화적 에토스와 신종교 영화/다큐멘터리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한다.

(1) 신종교 현상의 '낯설게 보기': 주변종교와 대안종교 개념으로 신종교 이해하기

(2) 한계에 갇힌 새로움: 신종교 영화의 주제와 연구 경향의 현향과 문제점 파악

(3) 신종교 영화의 유형: <더 패밀리>, <개벽>, <오쇼 라즈니쉬의 문제적 유토피아> 등을 중심으로 사회비평적 종교 다큐멘터리의 특성과 황색저널리즘의 문제점을 살피고 <쿠마레>를 통해 상상적 신종교 영화의 새로운 실험을 검토한다.

(4) 신종교의 문화적 에토스와 신종교 영화의 형상화 방식: <거룩한 지옥>, <정화: 사이 언톨로지>와 신앙의 감옥> 등을 통해서 사회적 일탈과 세뇌로 신종교를 규정하는 신종교 다큐멘터리의 황색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오쇼 라즈니쉬의 문제적 유토피아>와 <화평의 길>을 통해 신종교 참여자들이 지닌 목소리의 다성성과 서발턴의 대안종교적 비전을 확인한다.

7주차. 실낙원의 트라우마와 제의적 영화체험 (교재 5장)

- 학습목표: 영화 <박하사탕>의 영상 분석을 통해 시간의 역행을 거쳐 가정법적 리미날리티를 구현하는 제의적 영화체험이 역사적 기억을 의례적으로 영상화하는 양상을 이해한다.

(1) 세기말의 이벤트, 역사적 기억의 영상적 시간 매듭: <박하사탕>의 세기말 개봉 이벤트를 신화와 의례를 연계하는 신바빌로니아 학파의 관점에 따라 아키두 신년축제와 시간의 갱신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2) 시간의 역행과 제의적 영화체험: 시간의 공포를 넘어서 시간의 소거를 구현하는 제의적 체험(Eliade), 연행(performance)적 의례이론의 관점(V. Turner)으로 본 제의적 영화 체험

(3) 역사적 기억에서 신화적 이야기로: 연속적 플래시백의 시간역행을 통한 원죄의 기억 소거

(4) 연금술적 상상력의 영화적 표현: <박하사탕>의 몽타주, 미장센, 셔레이드 분석

8주차. 원죄의 고통을 윤회하는 인생의 사계 (교재 6장)

- 학습목표: 한국과 동아시아 불교의 불이론(不二論)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불교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지닌 불이론적 몽타주, 미장센, 셔레이드로 분석하고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모티브가 결합된 상상적 종교영화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 (1) 상상적 종교영화와 보편적 죄의식의 의례적 영화체험: 실천적 의례이론의 관점에서 본 상상적 종교영화의 가능성 이해
- (2) 연기(緣起)와 역설의 몽타주: 한국의 4계절과 불교의 사성제(四聖諦)-연기설과 동아시아 음양오행론의 상징적 결합 양상과 생사윤회의 역설적 몽타주 분석
- (3) 마음과 세계의 공간적 디제시스 구성과 불이(不二)의 미장센: 일심이문(一心二門)과 중생과 부처의 불이론적 미장센 분석
- (4) 의례화된 셔레이드와 불이의 의례적 몸짓: C. Bell의 의례화(ritualization)의 실천적 의례이론을 통해 악업과 고행의 의례화된 셔레이드가 불이의 몽타주로 형상화하는 양상 설명

9주차. 신화적 이야기 구조와 신화적 영웅 (교재 7장)

- 학습목표: 신화의 이야기 구조와 통과의례적 성격을 살펴보고 신화적 영웅 캐릭터의 유형과 특성 및 심층심리학적 기능을 이해하고 실제로 <반지의 제왕>, <트위스터>, <시스터 액트>, <스타워즈>, <마스크> 등의 영화에 반영된 신화적 이야기와 캐릭터의 양상을 검토한다.

- (1) 신화적 이야기의 통과의례적 성격: 의례의 개념과 통과의례의 3단구조 설명
- (2) 신화적 영웅 이야기의 12단계 구조: J. Campbell의 신화이론과 신화적 영웅담 분석
- (3) 신화적 영웅 캐릭터의 유형과 기능: C. Vogler의 신화적 영웅의 심층심리학적 설명

10주차. 신화적 욕망과 영상적 주술 (교재 7장)

- 학습목표: 영화와 광고를 통해 금기의 욕망과 성스러움을 소비하는 대중문화의 양상을 이해하고 신화적 욕망을 이미지로 구현하고 소비하는 영상적 주술의 특성을 분석한다.

- (1) 금기의 욕망과 성스러움의 소비: 성스러움의 금기 위반의 광고 분석
- (2) 신화적 욕망을 소비하는 영상적 주술: J. Frazer의 이론 접촉주술과 모방주술 소개와 신화적 모티브를 이미지로 구성하여 주술적으로 소비하는 영상적 방식 분석
- (3) 영상 캐릭터의 심층심리학적 이해: <에이리언>과 <미세스 아웃파이어>를 중심으로 한 영화 캐릭터에 대한 C. Jung의 심층심리학적 분석
- (4) 신화적 욕망을 구현하는 이미지의 소비: S. Jhally의 문화상품 비평

11주차. 죽음과 생명의 종교영화 (교재 8장)

- 학습목표: 대규모 인명이 살상되는 사회적 죽음의 뒤에 자리잡은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폭력의 맥락을 살펴보고, <인생은 아름다워>와 <원들러 리스트>를 중심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희극적 여유와 비극적 용기의 모델을 이해하며, 죽음을 파악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관점과 영화의 생사학을 습득한다.

- (1) 사회비평적 종교영화와 공감적 종교영화: <미션>, <시계태엽오렌지>, <사일런스>를

중심으로 종교적 억압과 사회적 폭력이 위선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사회비평적 종교영화와 공감적으로 사회적 폭력에 맞서는 공감적 종교영화를 분석한다.

(2) 죽음을 대하는 비극적 공감의 용기와 희극적 여유의 지혜: 유대인 학살을 다룬 <선들러 리스트>와 <인생은 아름다워>를 중심으로 홀로코스트 신학과 죽음을 극복하는 비극을 초월하는 용기와 희극적 여유의 지혜의 두 가지 모델을 이해한다.

(3) 망각의 기억과 기억의 생명력을 전승하는 종교영화: 한국 유교적 장례문화를 다룬 영화 <축제>와 일본 원주민 종교를 다룬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를 통해 죽음을 수용하는 생사관의 상이한 모델을 설명한다.

12주차. 일본 신도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교재 8장)

- 학습목표: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이를 이해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의 신도문화가 지닌 문화적 에토스인 생명주의와 마코토를 파악하며, 일본 신화를 통해 구조주의적 신화분석을 익힌다.

(1) 애니메이션의 매체적 특징과 실사영화와의 차이

(2) 생명주의와 마코토의 문화적 에토스: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등을 중심으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생명주의와 마코토의 문화적 에토스를 파악한다.

(3) 일본 신도의 원형신화와 구조주의적 신화 분석: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소녀의 기원이 되는 아마테라스 신화를 중심으로 일본 신화의 원형을 파악하고 E. Leach의 구조인류학적 관점을 적용한 신화에 대한 구조주의적 분석을 익힌다.

13주차. 불화와 화해의 영화적 변주곡 (교재 9장)

- 학습목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종교적 접근을 비교하고, 연행적 의례로서의 종교 영화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교와 샤머니즘의 종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악과 고통의 극복방식의 영화적 표현 양상을 분석한다.

(1) 악과 고통의 문제와 종교영화: 신정론의 유일신교적 접근과 다신론의 주술-의례적 접근을 비교하고 V. Turner를 비롯한 연행적 의례론을 적용하여 <곡성>, <밀양>, <만신> 등의 오프닝 시퀀스와 엔딩 시퀀스를 하나의 몽타주로서 분석함으로써 악과 고통을 표상하고 그 극복을 시도하는 종교적 양상을 이해한다.

(2) <곡성>: 벗어날 수 없는 의심과 집착의 비극적 전염병

(3) <밀양>: 초월적 기대의 절망에서 수평적 배려의 희망으로

(4) <만신>: 무신도(巫神圖)와 쇠걸립의 몽타주

(5) 수직적 은총의 동정에서 수평적 배려의 공감으로

14주차. 신비주의 종교영화(교재 10장)

- 학습목표: 신비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신비주의 영화의 특성과 형상화 양상을 파악한다.

(1) 신비주의 개념과 신비주의 영화의 특성: W. James를 중심으로 신비주의 개념을 이해하고 S. Freud와 R. Otto의 신비주의 이론을 통해 신비주의 영화의 특성을 파악한다.

(2) <라이프 오브 파이>, 자아 생존과 경외의 신비주의: 힌두교, 이슬람, 그리스도교가 혼용된 인도에서 과학과 종교의 두 가지 인생담을 힌두교와 유대교 신비주의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3) <세이프 오브 워터>, 자아 희생과 사랑의 신비주의: 권력자들의 사회적 지배와 종교적 억압에 맞서 타자와의 합일을 이루는 사랑과 서발턴의 연대를 이해한다.

(4) 스크린에 투영된 신비주의의 두 차원: 오토의 누미노제 개념에서 경외의 떨림과 사랑의 일치에 수직적으로 구분되며, <라이프 오브 파이>와 <세이프 오브 워터>가 각각 전자와 후자를 대표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강좌는 전반적으로 종교와 영화의 특성과 문법을 비교 검토한 토대 위에서 종교와 영화의 관계와 유형을 검토한 뒤에, 시간, 공간, 인간의 세 차원에서 종교적 소재와 주제를 영화적 영상화 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제시한 뒤에 취했으며, 한국의 종교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무속, 신종교, 유교, 도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 신도 등을 포괄하는 한편, 유럽과 미국은 물론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인도, 중동, 남미 등도 일정하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대한 형상화 방식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 영화학의 다양한 기법들을 몽타주, 미장센, 서레이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종교학, 신학, 신화학, 의례학, 인류학, 정신분석학, 심층심리학, 서발턴학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학부의 교양과목이 대형 강좌로 운영되거나 심층연구를 진행하려고 하는 대학원의 전공수업으로 운영할 때 고려할 만한 방식이다. 필자가 집필한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 -종교와 영화의 세계-』는 2020년 2학기 이후로 고려대학교 학부 핵심교양 <종교와 영화> 강좌의 교재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업에서 다루는 종교와 영화도 많고 개념과 이론도 깊이가 있어서 학생들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일부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항상 뒤따르고 있으며, 한 영화학자는 영화학과에서 대학원 교재로 사용할 만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학생들은 실제로 미리 영화를 보아야만 이해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전문적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강좌 운영(안)은 실제 강의에 적용할 때에는 필자처럼 14주차 전체를 강행하기보다는 예시된 운영(안)의 반 정도로 대폭 줄이고 편집한 영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토론을 하는 방식을 가미하는 것이 훨씬 더 원활한 강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종교와 영화> 강좌의 미래 전망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교에서 학부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고 운영되는 <종교와 영화> 강좌의 교육 현황과 역사적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종교와 영화> 연구와 교육은 21세기에 접어들 무렵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의 신광철 교수의 주도로 처음으로 대학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의 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영화> 강좌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종교와 영화>는 한신대학교에 개설된 이후 상당수의 강사군을 배출하면서 ‘종교와 영화’ 관련 전문 연구성과들을 일정하게 산출하면서 일부 대학으로 확대되는 데에 이르렀으나, 그러한 확산이 특정한 강사들의 개인적 관심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좌 개설의 주체이자 제도적 기반이 되는 종교(문화)학과의 점차 쇠퇴하고 소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종교문화학과에서 디지털문화콘텐츠학과가 분리된 한신대학교에서는 종교문화학과가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점차 소멸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종교와 영화> 강좌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

물론 서울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에 <종교와 영화> 강좌가 잇달아 개설되어 운영중이지만, 그마저도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종교학과라는 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제도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종교와 영화> 강좌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종교학을 전공한 교수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의해 교양학부 차원에서 개설되고 운영되는 순천향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해당 교수가 은퇴하면 해당 과목은 사라질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종교와 영화> 강좌의 유지와 확산을 위해서는 강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학과의 유지와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 대안책으로서 관련 학과나 교양학부 수준의 강좌 신설이 필요하다. <종교와 영화>는 서구에서도 인기 있는 종교학 교양과목이지만, 한국에서도 일단 개설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기 때문에 개설과 유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종교와 영화> 강좌는 지역별, 종교전통별, 영화장르별, 분석관점별로 다양한 교육과 학습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소형 강좌와 대형 강좌의 두 가지 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종교와 영화> 강좌의 대부분의 사례에 해당하는, 100명 미만의 중소형 강좌, 특히 50명 내외의 소형 강좌의 경우에는 강사가 강의 전반부에 종교와 영화에 대한 가능한 분석과 접근의 모범을 선보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종교전통과 영화장르를 망라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적으로 실존적 관심이 있는 영화를 선택하고 개인이나 조 단위로 학생들 스스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소형 강좌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강의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적극적 참여를 위해 강사가 특정 주제와 영화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선택한 내용에만 집중하면서 종교와 영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갖추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서울대학교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중형 강좌는 대형 강좌처럼 강사의 강의를 통한 전문 지식의 전달과 더불어 보고서의 제출 혹은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일정하게 보완하는 강의-보고서의 혼합형 강좌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0명 이상, 특히 고려대학교의 사례처럼 300-400명을 넘는 대형 강좌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이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학생들은 강사를 통해 익힌 전문 지식들을 시험을 통해 테스트받거나 일부 개인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하기도 한다. 다만 개인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강사의 간단한 코멘트나 평가 외에 자세한 토론이나 다른 학생과의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강사가 일방적인 강의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강사가 전문적 안목에 의해 종교와 영화와 관련된 종교적 소재와 주제, 영화의 다양한 장르, 종교의 지역별 안배와 전통별 균형을 면밀하게 고안함으로써 교육과 학습의 양이 많고 내용이 다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종교와 영화> 강좌는 대체로 강사가 종교학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종교 영화를 선택하는 양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종교와 영화>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강사들이 대부분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대체로 강좌는 종교 혹은 종교적 인간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검토할 수 있는 현대문화의 대표적 매체로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표현의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여 종교적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하여 강사들이 권역별 안배나 종교전통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제별 강좌를 구성하고 있다. 요컨대, <종교와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학 강의가 아니라 종교학 강의라는 정체성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영화학자가 종교영화에 접근할 때와 다른 독특한 시각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적 접근의 독자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에는 자칫하면 영화학과 종교학의 융합적 지평에 대한 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영화가 기존의 종교적 소재와 주제가 영화적 표상방식으로 재현 혹은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양상 외에도 영화적 표상방식이 새로운 종교적 형태나 에토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인간의 경험과 표상이 어우러지는 문화로서 종교와 영화가 만나는 새로운 양상도 가능하다. 실제로 동일한 교리나 세계관을 공유하는 종교 전통 내부에서도 근본주의, 정통주의, 자유주의, 경건주의, 열광주의, 신비주의 등처럼 다양한 종교적 관점과 양상이 가능하듯이, 다양한 영화적 기법과 연계된 새로운 표상 방식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종교성 혹은 종교적 스타일을 구성하기도 한다. 예컨대,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에 영화적으로 표현되는 김기덕의 종교적 스타일은 겉으로는 불교적 소재와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불교 주류의 중도적 방식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적 방식도 아니며,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혼합된 ‘원죄의 연기-유전’과 ‘고행을 통한 극복’이라는 비주류적 개인적 방식으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종교와 영화> 강좌가 ‘종교영화’가 아니라 ‘종교와 영화’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와 영화’는 어쩌면 종교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라 종교이면서 영화인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인 듯하다. 그러므로 영화 텍스트에서 종교적 소재와 주제를 추출하여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화적 앵글과 프레임이 형상화하는 종교적 의미의 매체적 재구성이 그림, 언어, 문자, 인쇄를 거쳐 시청각적 체험을 아우르는 가상의 동영상 체험을 통해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전유하는지를 충분히 성찰할 때, <종교와 영화> 강좌는 종교적 영화를 넘어서서 영화적 종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하고 탐색하는 경지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자료(강의계획서 및 홈페이지)

- 신광철,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한신대학교, 1999년 1학기.
이창익,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한신대학교, 2008년 1학기.
최화선,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서울대학교, 2022년 2학기.
방원일,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서울대학교, 2017년 겨울학기
송현주,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순천향대학교, 2022년 2학기.
박종천,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고려대학교, 2015년 1학기 - 2022년 겨울학기.
<https://www.filmandreligion.com/syllabi/> (2022년 12월 10일 접속) 미국 대학교의 <종교와 영화> 강의계획서 470개 소개하는 홈페이지(2004-현재 구축)

2. 단행본

- 박종천. 2020. 『유한의 시간을 비추는 무한의 스크린 -종교와 영화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이종승. 2005. 『영화와 샤머니즘: 한국적 환상과 리얼리티를 찾아서』. 서울: 살림출판사.
Eaghl, Tenzan & Rebekka King. 2022. *Representing Religion in Film*. London: Bloomsbury.
Lyden, John C. ed.. 2009. *The Routledge Companion to Religion and Film*. London: Routledge.
Solano, Jeanette Reedy. 2022. *Religion and Film: The Basics*. London: Routledge.
Watkins, Gregory J. ed.. 2008. *Teaching Religion and Fil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연구논문

- 김윤성. 2003. 「인공지능과 영혼: 2001 Space Odyssey에서 A. I.까지」. 『종교문화연구』 4: 21-41.
민순의. 2007. 「영화 《밀양》이 제기하는 인간학적 성찰 -악의 현실과 구원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13: 211-242.
박종수. 2016. 「한국 종교 영화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 『한국예술연구』 13: 197-213.
박종천. 2003. 「연금술적 상상력과 제의적 영화 체험: 영화 <박하사탕> 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4: 47-69.

박종천. 2005. 「종교가 영화를 만났을 때: 김기덕의 <봄여름가을겨울그리고봄(2003)>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4: 291-316.

박종천. 2016. 「〈서유기〉의 신화적 콘텐츠 변용 양상 연구 -MSMU의 콘텐츠 융합-최적화 전략-」, 『종교문화연구』 26: 49-76.

박종천. 2018. 「현대 영화에 나타난 신비주의적 상상력 -〈라이프 오브 파이〉와 〈셰이프 오브 워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1: 65-93.

박종천. 2019. 「신종교영화의 유형과 특성」, 『대순사상논총』 33: 179-218.

박종천. 2020. 「불화와 화해의 영화적 변주곡 -한국 영화 〈곡성〉, 〈밀양〉, 〈만신〉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 41: 47-69.

신광철. 2000a. 「한국 가톨릭영화의 회고와 전망」, 『부산교회사보』 28.

신광철. 2000b.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종교학연구』 19: 83-96.

신광철. 2002a.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종교연구』 27: 119-140.

신광철. 2002b. 「영화의 종교적 구조에 대한 성찰 -영화, 종교(학)적으로 읽기 위한 예비적 작업」, 『종교문화연구』 4: 15-28.

신광철. 2002c. 「신종교와 영화 1: 임권택 감독의 영화 〈개벽〉의 경우」, 『신종교연구』 7: 36 -51.

신광철. 2003a. 「영화와 종교교육」, 『종교교육연구』 17: 59-78.

신광철. 2003b. 「굿의 사회적 치유능력에 대한 현대적 해석: 영화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와 〈그 섬에 가고 싶다〉가 꿈꾸는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4: 5-15.

신광철. 2004. 「한국 종교 영화의 현황과 전망」, 『한국종교』 28: 121-153.

신광철. 2016. 「'신화와 영화'론의 종교학적 재평가」, 『종교문화연구』 26: 1-18.

안 신. 2010. 「영화의 상상력과 다문화 종교교육 -영화에 나타난 예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32: 65-83.

이나리. 2016. 「김기덕의 「피에타」 속 기독교적 수난과 파토스 이미지 읽기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7: 1-32.

이창익. 2002. 「영화적 상상력의 제의적 구조」, 『종교학연구』 21: 119-138.

이창익. 2016. 「소문의 종교적 구조 -영화 〈곡성〉의 마법 풀기-」, 『종교문화연구』 27: 33-74.

최화선. 2015. 「신화, 유행, 잔존하는 이미지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영화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7: 155-187.

최화선. 2016. 「종교를 '본다'는 것: 종교와 영화 가르치기」, 『종교문화비평』 29: 79-100.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토론문

송현주(순천향대학교)

〈종교와 영화〉(Religion and Film)라는 강좌명은 매력적이다. 이 강좌가 다루는 주재료가 영화라는 데서 학생들의 관심을 끈다. ‘문자’가 아닌 ‘영상’을 접하기 때문에 수업이 부드럽고 편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라는 전통적 이미지가 지닌 고루함, 또는 현학성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기도 한다. 박종천 선생님은 2015년부터 〈종교와 영화〉 강의를 담당해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 대학 내 〈종교와 영화〉 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강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서론에서 밝혔듯 한국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와 영화〉 강좌 개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본격적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교양교육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문에 의하면 한국 대학 내 〈종교와 영화〉 강의는 소수의 대학에서, 특히 종교학 전공자들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종교학의 교양교육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커리큘럼의 내용 구성은 종교전통과 지역의 안배, 주제별 접근이 병행하며, 강사 개인의 관심과 취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강좌 운영의 형식은 크게 대형 강좌와 소형·중형강좌로 나누어진다. 강사 개인의 취향과 관심, 능력, 강좌의 크기에 따라 교수법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부분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1. ‘종교학’ 과 ‘영화학’ 의 융합 - 이상적 모델

발표자는 강좌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을 ‘종교학’ 과 ‘영화학’ 의 융합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종교와 영화〉의 강좌를 단지 종교학의 이론적 성과를 영화를 통해 확인하거나, 영화가 종교의 단순한 재현이라고 보지 않는 관점이다. 발표자는 한국 대학에서 이 강좌가 영화학 강의 보다는 종교학 강의라는 정체성에 방점을 두고 운영된다고 평가하며, 그것은 자칫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문법,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부분에 토론자도 크게 공감한다. 강좌명이 〈영화를 통해 본 종교〉가 아니고 〈종교와 영화〉이기 때문에, ‘종교’와 ‘영화’가 대등한 지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강의에서 영화학의 지식이 필요함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학 전공자가 영화학 전문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화학 전공자와의 팀티칭을 시도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또 강사의 관심에 따라 영화적 기법 보다는 영화를 매개로 종교의 양상과 의미 분석에 치중하는 강의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나름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소설과 영화>, <영미 명작과 영화>라는 두 교양강좌는 비슷한 네이밍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소설 분석에 치중하고, 다른 하나는 영화의 테크닉과 기법에 치중하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며, 그것을 커리큘럼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 모델은 종교학과 영화학 양자의 적절한 융합에 있음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변주가 있을 수 있음도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논문의 3쪽에서 언급했듯이, 서구 대학에서 <종교와 영화> 관련 주제의 특화-심화형 강좌들의 개설에 주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종교와 영화> 강좌의 정체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들

1) 종교의 정의 문제 - 본 강좌는 ‘종교’ 라는 영역과 ‘영화’ 라는 매체의 만남이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인가” 라는 정의의 문제가 가장 먼저 대두된다. 그리고 ‘종교’ 와 ‘영화’ 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문제 역시 뒤따른다. 이 강좌는 ‘종교의 정의’ 에 대해 각 강의자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에 대해 혹시 서구 학계에서는 어떤 흐름이 보이는가?

2) 발표자는 ‘종교’ 와 ‘영화’ 를 거의 대등한 의미와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행적으로(parallel) 파악하는 듯하다. 엘리아데, 빅터 터너, 루돌프 오토 등의 종교이론을 중심으로 영화를 분석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종교가 단지 스크린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것은 ‘영화가 종교’ (film as religion)라는, 혹은 영화가 종교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예: 제의적 영화체험으로서의 <박하사탕>)

그렇다면 결국 기존의 ‘종교’ 와 ‘영화’ 가 다르지 않고, 모두 인간의 문제를 다루며, 같은 해법, 유사한 사고방식을 공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매트릭스>나 <라이프 오브 파이>, <스타워즈> 같은 영화는 오히려 기존의 종교를 해체하는(그리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가? ‘영화’ 라는 매체와 ‘종교’ 는 평화적 공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의 종교현상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 진원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3) 발표자는 맺음말(15쪽)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종교와 영화> 강좌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종교학’ 전공자들이 점차 사라지는 교육제도적 환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 의 존재 의의와 가치가 점차 축소되는 것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종교와 영화> 강좌가 지속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3.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

요즘 대학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은 강좌의 내용만이 아니라 교수법이다. 흔히 학생 참

여형 모델을 권장하며 그와 관련한 수많은 교수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발표 논문에서는 대형 강좌와 소형, 중형 강좌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공감할 점이 많다. 필자도 최대 110-120명 정도의 강의식 강좌도 진행해보았고, 40-45명의 인원으로 강의와 조별 토론을 혼합하여 진행해보기도 했다. 양자에 장단점이 있음은 사실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400여명이 넘는 수강생이 있다는 것은 강좌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질 높은 강의를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도 질 높은 강의를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 대형 강좌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피드백도 쉽지 않지만,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이나 공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논문에서도 지적했듯이(16쪽) 학생들의 과제물을 강사만 파악한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동료인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영감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대형 강좌의 경우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가 의문이다. 예컨대 조교를 배당하여 학생 관리를 돕거나, 레포트 채점 등을 도와주는지 궁금하다.

4. 논문의 주제와 부제

논문의 부제는 “한국 대학의 교양강좌 사례를 중심으로”이다. 한국 대학 내 강좌 개설 시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몇 개 대학의 강의계획서를 비교하여 개괄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의 핵심과 대부분은 고려대학교의 강좌 개발 내용이다. 따라서 부제가 “고려대학의 교양강좌 사례를 중심으로”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그것대로 충분히 중요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다른 대학교의 강좌 개발에서 중요한 모범이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교와의 내용 비교를 위해서는 단지 한 학기의 강의계획서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각 학교 마다의 사정(학점, 시간)과 구성원의 특질, 각 강의자의 강의 목표 설정, 운영상의 문제들이 충분히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논문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

송현동(건양대)

- I. 머리말
- II. 종교와 관광의 접점
 - 1. 관광사
 - 2. 관광자원
 - 3. 관광상품
 - 4. 교과목
- III. 종교관광 교과목 개발의 방향과 방법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종교와 관광의 접점을 살펴보고 대학의 종교와 관광관련 교과목 개발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종교학의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고민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종교는 매력도가 높은 관광자원이다. 관광자원은 관광객의 관광동기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관광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유·무형의 대상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교는 관광에 필요한 문화적, 역사적, 체험적, 교육적, 자아 성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해당된다. 특히 종교적인 역사와 의미를 가진 성지와 그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종교적인 요소와 관광적인 요소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종교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교학계의 이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에 최근 관광학계에서는 종교관광에 대한 관심과 성지순례 구조와 요소를 관광행위에 적용하려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 경향들이 학과 교과목 개발과 강좌 개설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종교학계에서의 관광에 대한 논의는 종교관광⁶⁾, 종교관광콘텐츠⁷⁾, 성지순례⁸⁾, 종교관

5) 고종원 외, 『관광학의 이해』, 기문사, 2013, p. 111.

6) 임순록·이웅진, 「한·일 종교관광의 특징-치유(治癒)」를 통해본 불교(佛敎)관광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1(1), 동북아관광학회, 2015; 임순록,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와 최근 동향-불교와 종교관광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송현동·김경한,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종교연구』 65, 한국종교학회, 2011.

광활성화⁹⁾와 관련된 논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종교와 관광의 연관성을 고찰하여 종교학계의 외연 확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성지순례는 관광사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여행의 기원과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또한 수도원은 성지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숙박과 음식 제공, 그리고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했다.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수도원의 기능은 오늘날 호텔, 병원, 호스피스로 분류되고 있다. 유럽여행상품과 관광지는 종교문화와 관련된 성당과 종교문화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오늘날 축제의 구조와 기능은 종교의례의 기원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광학계에서 관광에 대한 논의는 종교관광의 만족도¹⁰⁾, 선택속성¹¹⁾, 매력속성¹²⁾, 관광동기¹³⁾종교관광 활성화¹⁴⁾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논문은 종교관광이 다른 관광상품과 비교했을 때 참가자들의 만족도, 다른 상품대비 비교우위에 있는지, 관광자원으로 매력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종교학계와 관광학계의 종교와 관광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성지순례’에 대한 부분은 상호 공통 관심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각 교단에서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신앙심 고취를 위해 성지순례의 개발과 필요성¹⁵⁾을 주장하고 있고, 관광학계에서는 관광상품의 개발과 참여자들의 만

- 7) 김진형, 「종교문화콘텐츠의 진단과 대중화」, 『종교문화비평』 34(34), 종교문화비평학회, 2018; 송현동, 「전주한옥마을과 종교: 종교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8,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7; 송현동, 「한국 신교의 문화관광콘텐츠 잠재성 연구」, 『신종교연구』 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이남희, 「e-문화관광 정보의 현 단계와 전망 : 종교문화관광 콘텐츠화의 필요성」 36,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 8) 이재수, 「전통사찰 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정토학연구』 35, 한국정토학회, 2021; 안양규, 「불교의 성지 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 『종교문화연구』 2,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00;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 한국종교학회, 2008; 송현동, 「성지순례의 관광사적 의미 고찰」, 『종교문화연구』 32,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9.
- 9) 박의서, 「한국 종교관광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 『관광연구저널』 25(5), 한국관광연구학회, 2011; 정연정, 『충북도내 종교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전략 : 천주교 관련 문화관광 사업 발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김태영, 『종교관광과 경남의 정책과제』, 경남연구원, 2009; 김태형,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3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10) 최병석·최종률, 「종교관광 참가동기와 만족도의 인과관계 및 차이 연구」, 『관광경영연구』 22(4), 관광경영학회, 2018; 백규리·이계희, 「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한국관광연구학회, 2021; 김보나, 「순례자들의 목소리: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순례자들의 순례동기와 성지내 경험의 이해」, 『관광학연구』 45(1), 한국관광학회, 2021.
- 11) 조영신, 「IPA를 적용한 종교관광 선택속성 탐색」, 『호텔경영학연구』 27(7),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8; 원용국,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내재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관광경영연구』 23(2), 관광경영학회, 2019.
- 12) 오정근, 「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 만족 간 영향 관계-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7(1), 관광경영학회, 2013; 김해옥, 「순례 관광의 진정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1.
- 13) 양승탁·이승곤, 「유진룡,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12), 한국관광연구학회, 2018; 이양림·김영미,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2(2), 한국관광학회, 2018; 양승탁, 『종교관광객의 동기와 행동구조관계 분석: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 14) 권봉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관광학의 개념 및 성지순례 관광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8(6), 한국호텔관광학회, 2016; 김해옥, 「순례 관광의 진정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1; 김송이·정철, 「순례관광의 진정성이 영성적 웰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1; 이혜미·한진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종교·순례 관광객 활성화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7(3),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8; 강준수·송영민, 「가톨릭 성지순례 공간에서의 지역과 관광상품 개발 고찰-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1; 정병용, 「사찰관광 개발을 통한 종교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6(1), 한국관광연구학회, 1997.

족도 측면에서 성지순례를 다루고 있다. 또한 현대 관광현상을 종교의 성지순례와 같은 형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시도¹⁶⁾와 콘텐츠투어리즘 현상을 성지순례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교와 관광의 융합연구를 넘어서 종교연구 관련 학과에 종교와 관광과 관련한 교과목 개발 방향과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종교와 관광의 접점을 관광자원 및 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종교학의 연구대상과 이론들이 관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교의 관광자원으로서 어떤 속성과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관광 교과목 개발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종교와 관광의 접점

1. 관광사

관광사의 관점에서 성지순례는 오늘날 관광의 기원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성지순례는 종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례행위이다. 성지순례는 종교인에게 자신이 종교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의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건강과 소원의 실현을 위한 행동 의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지순례는 이동을 전제로 하며, 사람들의 이동에는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일반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숙소와 음식, 이동수단, 질병이 걸린 경우 치유와 휴식을 위한 장소도 필요하다. 성지순례자들의 증가는 여행을 위한 준비물과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을 필요로 하게 한다. 중세시대 성지순례가 증가하면서 성지순례 주변에는 오늘날과 같은 숙박시설과 음식점들이 생겨났으며, 성지순례자들을 위한 가이드와 안내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성지순례라는 목적을 제외하면 오늘날 여행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관광학계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관광의 기원을 성지순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선교를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 역시 형식적인 측면은 오늘날의 국제여행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여행과 공통점이 있고, 선교지의 안내서, 생활과 문화, 그리고 숙박 및 이동은 여행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2. 관광자원

종교는 문화관광자원이며, 잠재적 가능성 또한 높다. 한국 갤럽의 2021년 한국인의 종교현황조사에 의하면 종교 인구는 약 40%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 54%, 2014년 50%, 2021년 40%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에게도 불교의 사찰, 천주교의 성당, 개신교의 교회 등의 종교

15) 이병원,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9.

16)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2,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9.

시설뿐만 아니라 성지, 성소, 순교지, 순례길 등은 관광자원으로 기능한다. 종교의례인 불교의 템플스테이, 천주교의 피정, 유교의 선비문화체험 등 또한 종교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네 가지로 정의,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형 문화재 둘째, 무형 문화재 셋째, 기념물 넷째, 민속자료(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종교문화재는 유형, 무형, 기념물로 지적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교별 분류를 보면 불교와 유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신앙의 하나인 무속의 곳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2-1 >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교별 분류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비고
종교별	항목	항목	
유교	조선왕릉(2009)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유교 종묘(1995)		
	서원 9곳(2019)		
	소수서원(경북 영주), 옥산서원(경북 경주)		
	도산서원(경북 안동), 병산서원(경북 안동) 도동서원(대구 달성), 남계서원(경남 함양) 무성서원(전북 정읍), 필암서원(전남 장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불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처용무(2009) 영산재(2009) 연등회(2020)	
	부석사 (경주 영주), 봉정사 (경북 안동)		
	법주사 (충북 보은), 마곡사 (충남 공주)		
	통도사 (경남 양산), 대흥사 (전남 해남)		
	선암사 (전남 순천)		
석굴암과 불국사(1995)	강릉단오제(2005)		
해인사장경판전(1995)			
무속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천주교	서울순례길	세계국제순례지	교황청 승인

3. 관광상품

성지순례는 종교관광상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형여행사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지순례상품이 구성되어 있다면, 종교관광 전문여행사에는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지순례상품이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지, 순교지, 종교건축물, 종교축제는 관광상품으로 연결되어 있다. 종교관광 전문여행사가 운영하는 성지순례 상품의 경우 천주교는 신부, 개신교는 목사, 불교는 승려가 직접 동행하여 성지순례를 진행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성직자가 여행가이드 역할을 한다. 또한 일반관광 상품과는 다르게 쇼핑이 없거나 최소화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관광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성지순례이동지의 다른 관광지들을 방문하는 것은 포함시키고 있다.

요약하면, 성지순례 상품은 종교전문가에 의해 모집되고 이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종교를 믿는 단체와 신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 여행상품과 다르게 비수기와 성수기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수요형태를 보이고 있다.¹⁷⁾

4. 교과목

관광자원은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등으로 분류되며, 종교는 문화관광자원에 해당한다. 관광학 분야의 문화관광관련 전공서적에서 종교는 한국문화와 관광, 전통문화와 관광, 종교와 관광, 축제와 관광,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 등의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¹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관광학회가 기획한 “문화관광론-관광 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¹⁹⁾의 목차에서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유산관광과 문화유산, 종교관광, 축제와 문화관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노경국의 “관광자원론”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 등²⁰⁾이 제시되어 있다. 관광학 분야와 종교학 분야의 교과목 내용의 연결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2> 종교학과 관광학 교육 내용의 접점

구분	관광학	종교학	비 고
이론적 접근	관광사	성지순례	종교관광
	한국문화와 관광	불교문화 유교문화 기독교문화 민간신앙 세시풍속	문화관광 관광스토리텔링
	종교와 관광	종교관광 성지순례 종교문화(재)	문화관광
	축제와 관광	의례	관광이벤트
	전통문화와 관광	종교문화	문화관광
	문화관광콘텐츠	종교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콘텐츠투어리즘
실용적 접근	관광상품	축제 성지순례 명상관광	체험관광
	의례문화산업	통과의례산업	의례산업

이처럼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학분야와 종교학분야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내용의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첫 번째 단계이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1년, 2022년에 종교와 관광을 결합한 <종교문화 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며, 중

17) 조광익 외, 『문화관광론-관광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백산출판사, 2022; 조태영, 『문화관광론』, 대왕사, 2011.

18) 문상기,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2020; 조광익 외, 『문화관광론-관광 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백산출판사, 2022; 조태영, 『문화관광론』, 대왕사, 2011; 이응규, 『문화관광론』, 대왕사, 2018.

19) 조광익 외, 『문화관광론-관광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백산출판사, 2022.

20) 노경국, 『관광자원론』, 백산출판사, 2021.

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과정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산티아고 순례길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종교와 관광과 치유가 결합된 융합종교관광프로그램이다.



2022. 10. - 12.

행복하길 | **치유되길** | **이어주길** | **기억되길** | **함께하길**

스텝스 투어 가이드

- 1. 순례성지 관광안내(현판)에 비추어 지정 지류유적에 수행
- 2. 치유유적(지역)에 있는 각 성지 토제품 투어 및 스텝스 투어
- 3. 모든 스텝스 관광사 공회(에프) 및 @midam_content
- 4. 개인 SNS에 업로드 하면 인증완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반도길** | **영랑사** | **미담문화연구소**



2022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Religious culture travel healing pilgrimage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일시	강의내용	강사	장소	강사
9. 24.(목)	10시 금산교회 역사와 인물	금산교회 금산교회 김종현 담임 목사	금산사	YTN 송태업 기자
	10시 모악산과 한국의 종교문화	금산사		
10. 1.(목)	13시 금산사의 역사	금산사	금산사 주지 월원 스님	전북불교대학 이지복 부학장
	14시 한강해설			
10. 8.(목)	10시 한국 천주교의 수류성당	수류성당 천주교 전주교구 신임문화해설사 이종승		

대상: 지역주민 20인 이하 | 문의: 문의 010-6282-7762 | 예약: www.suryugeumsan.com

문화체육관광부 | **한반도길** | **영랑사** | **미담문화연구소** | **진라북도** | **김제시** | **김영희**

<당진시 사례>
출처:
<http://www.chungnamilbo.co.kr/news/userArticlePhoto.html>

<김제시 사례>
출처:
<https://www.suryugeumsan.com/18>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사례

III. 종교관광 교과목 개발의 방향과 방법

관광학 분야에서 종교관광은 특수목적 관광으로 분류된다. 특수목적관광이란 “여행자의 특별 관심 분야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양질의 여행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이 목적인 여행으로 목적지 중심이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 중심”²¹⁾으로 구성된다. 종교관광은 관광객의 동기가 종교적인 요소인 신앙, 기원, 의례수행의 목적을 갖고 있다. 종교와 관광의 교과목은 관광분야에서도 특수목적 관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종교와 관광과목 개설의 방향은 종교학의 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학의 이론과 내용이 실용학문인 관광분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은 학생들에게 종교학의 응용분야에 대한 시각 확장과 관심 확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종교학이 관광학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이론적인 측면과 둘째, 문화적인 측면, 셋째, 체험적인 측면, 넷째 문화

21) 네이버 특수목적관광 어학사전 검색

비평적인 측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의 기본 방향은 종교와 관광, 종교학과 관광학의 접점 찾기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관광산업과 현상에 대한 종교학적 분석과 설명, 결합이다. 종교와 관광의 교과목 개발은 교과목의 교수자와 수강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요구를 조사하고, 특히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요구도 조사를 진행하여 반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교와 관광 교과목 담당자인 교수자가 관광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종교와 관광을 연결시키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3-1>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 방향 및 방법

과목명	개발 방향	개발 방법		
		교수자	매개자 조력자	수강자
종교와 관광	종교와 관광의 접점 찾기			
	이론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체험적인 측면 분석적인 측면.	관광개념	→	종교와 관광
		관광자원	→	종교관광자원
		관광개발	→	종교관광개발
		문화관광	→	종교관광상품
		관광상품	→	종교관광이벤트
		관광이벤트	→	종교문화콘텐츠
		문화관광콘텐츠	→	힐링명상관광
		웰니스 관광	→	축제이벤트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종교연구의 핵심주제인 “의례”를 중심으로 종교와 관광의 교과목의 접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의례를 중심으로 ‘인간의 삶과 의례문화’, ‘웰니스관광의 구조’, ‘명상관광의 유형’, ‘명상관광 상품기획’, ‘영성문화관광자원’, ‘의례와 관광’, ‘관광과 이벤트’, ‘관광과 통과의례 산업’, ‘관광과 축제’, ‘성지순례관광’, ‘종교관광상품’, ‘디즈니랜드와 성지순례’, ‘라이프이벤트 산업’, ‘데이 이벤트, 세시풍속이벤트’ 등이 있다.

종교와 관광 학습모듈(예시)

대영역	중영역	학습모듈	교수자	학습자	비고
			중요도	요구도	
종교와 관광	종교와 관광	- 종교와 관광의 접점 - 뽕지순례, 콘텐츠투어리즘	상	중	종교학 이론

관광의 구조	- 의례의 의미와 기능 - 터너 :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티스 - 개념 : 통과의례의 구조 - 엘리아데 : 성과 속	상	중	종교학 이론
인간의 삶과 의례문화	- 의례와 문화 - 일상과 비일상의 구별짓기	상	중	종교학 이론
의례와 관광	- 의례란 - 종교의례와 관광 - 사회의례와 관광 · 관광의 의례화	상	하	의례
성지순례관광	- 성지순례 개념 - 종교별 성지순례	상	상	종교학 이론 의례
종교관광	- 종교관광상품 분석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종교관광상품	중	상	종교문화
명상관광	- 명상관광 개념 · 불교 템플스테이 · 천주교 피정 · 원불교 마음공부 · 유교 선비문화체험, 서원스테이 등	중	하	의례 종교문화
영성문화관광	- 영성문화관광자원 개념 - 종교별 영성문화 - 관광자원 개발 방향 - 영성문화관광자원 상품	하	하	교의 종교문화
관광과 이벤트	- 이벤트 개념 - 관광이벤트	중	상	의례
관광과 통과례 산업	- 통과례의 개념 - 의례와 통과례산업	중	상	의례
지역문화와 축제	- 축제의 기원 - 축제의 개념과 특징 - 축제기획서 작성법	상	상	의례
라이프이벤트 산업	- 라이프이벤트 산업의 개념과 현황 - 데이 이벤트 - 소비의례의 내용과 유형	하	상	의례
세시풍속 이벤트	- 세시풍속 이벤트의 유형과 내용 - 세시풍속의 산업화	중	하	의례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의 방법은 학습모듈을 설계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각각의 입장에서 교육요구도와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과목 개발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었고, 학습자들의 교육요구도나 중요한 실증적 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교과목 개발의 방향과 방법은 교수자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요구도와 관련 산업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종교와 관광의 교과목 개설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러한 문제의식은 종교학의 실용학문과의 연계를 고민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서 논문 주제관련 종교학과 관광학계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성지순례라는 교집합의 관심분야를 도출하게 되었다. 관광학계는 현대인들의 관광행위를 ‘성지순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광의 의례화로 명명하는 등 현대관광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종교성지순례를 적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종교와 관광의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종교(학)와 관광(학)의 접점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교수자의 몫임을 주장했다. 특히 교수자는 관광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종교연구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관광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다음으로 교과목 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학습모듈을 설계하고 학습자의 교육요구도와 중요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과목 개발 예시는 ‘의례’를 주제로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을 제시했다.

본 논문의 한계는 교과목 개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교육학적인 이론과 방법 적용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여전히 교수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습자와 관련 분야의 산업체의 견해가 미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서적

- 고종원 외, 『관광학의 이해』, 기문사, 2013.
노경국, 『관광자원론』, 백산출판사, 2021.
문상기, 『문화관광론』, 백산출판사, 2020.
이용규, 『문화관광론』, 대왕사, 2018.
조광익 외, 『문화관광론-관광현상에 대한 문화적 이해』, 백산출판사, 2022.
조태영, 『문화관광론』, 대왕사, 2011.

연구보고서

- 김태영, 『종교관광과 경남의 정책과제』, 경남연구원, 2009.
정연정, 『충북도내 종교문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 전략: 천주교 관련 문화관광 사업 발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논문

- 강준수·송영민, 「가톨릭 성지순례 공간에서의 기억과 관광상품 개발 고찰-강화도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1.
권봉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관광학의 개념 및 성지순례 관광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 연구』 18(6), 한국호텔관광학회, 2016.
김보나, 「순례자들의 목소리: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순례자들의 순례동기와 성지내 경험의 이해」, 『관광학연구』 45(1), 한국관광학

회, 2021.

김송이·정철, 「순례관광의 진정성이 영성적 웰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21.

김진형, 「종교문화콘텐츠의 진단과 대중화」, 『종교문화비평』 34, 종교문화비평학회, 2018.

김태형,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3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김해옥, 「순례관광의 진정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관광연구논총』 33(3), 한양대학교 관광 연구소, 2021.

박의서, 「한국 종교관광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 『관광연구저널』 25(5), 한국관광연구학회, 2011.

백규리·이계희, 「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 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한국관광연구학회, 2021.

송현동, 「성지순례의 관광사적 의미 고찰」, 『종교문화연구』 32,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9.

송현동, 「전주한옥마을과 종교: 종교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8,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7.

송현동, 「한국 신종교의 문화관광콘텐츠 잠재성 연구」, 『신종교연구』 37(37), 한국신종교학회, 2017.

송현동·김경한, 「한국 종교관광의 특성과 과제」, 『종교연구』 65, 한국종교학회, 2011.

신광철, 「성지순례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콘텐츠 투어리즘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교 문화연구』 32,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19.

안양규, 「불교의 성지순례와 그 종교적 의의」, 『종교문화연구』 2,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00.

양승탁, 『종교관광객의 동기와 행동구조 관계 분석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8.

양승탁·이승곤, 「유진롱,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12), 한국관광연구학회, 2018.

오정근, 「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 만족 간 영향 관계-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7(1), 관광경영학회, 2013.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근대의 종교상황에 이르기까지」, 『종교연구』 52, 한국종교학회, 2008.

원용국,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내재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관광경영연구』 23(2), 관광경영학회, 2019.

이남희, 「e-문화관광 정보의 현 단계와 전망: 종교문화관광 콘텐츠화의 필요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36,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7.

이병원,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09.

이양림·김영미,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2(2), 한국관광학회, 2018.

- 이재수, 「전통사찰 순례 관광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정토학연구』 35, 한국정토학회, 2021.
- 이혜미·한진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종교·순례 관광객 활성화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7(3),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8.
- 임순록, 「한·일 종교관광의 전개와 최근 동향-불교와 종교관광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39,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 임순록·이용진, 「한·일 종교관광의 특징-치유(治癒)」를 통해본 불교(佛敎)관광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11(1), 동북아관광학회, 2015.
- 정병웅, 「사찰관광개발을 통한 종교관광활성화에 관한 연구」, 『관광개발논총』 6(1), 한국관광연구학회, 1997.
- 조영신, 「IPA를 적용한 종교관광 선택속성 탐색」, 『호텔경영학연구』 27(7),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18.
- 최병석·최종률, 「종교관광 참가동기와 만족도의 인과관계 및 차이 연구」, 『관광경영연구』 22(4), 관광경영학회, 2018.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평

허남진(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이번 한국종교학회 학술대회는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을 통해 응용인문학으로서의 종교학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종교학의 실천적 방향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문화콘텐츠학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에 몰아쳤던 인문학 위기, 그 대안으로 제시된 응용인문학 그리고 2000년대 초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학문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서 종교문화콘텐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영역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인문콘텐츠학을 인문지식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으로 거칠게 정의한다면, 종교문화콘텐츠학은 종교지식의 문화콘텐츠로의 활용 내지는 응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논평자는 송현동 교수의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을 종교관광콘텐츠학의 모색이라기보다는 종교학이 관광학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 읽고자 한다.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전남 종교·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나현기 외, 2020, 11-13쪽)에 의하면, 종교관광에 관한 관심은 2009년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2010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종교관광 활성화 방안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종교는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리고 여행사 차원에서 종교관광에 대한 증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계나 관광학계에 ‘종교와 관광’이라는 독립적인 교과목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송현동 교수의 <종교와 관광: 강좌 개발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발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격적인 논평에 앞서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발표자는 학문 간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종교학의 실용과목과의 연계를 위해 ‘종교’와 ‘관광’의 접점과 이를 토대로 대학의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학술대회 취지를 고려한다면, ‘종교학’과 ‘관광콘텐츠학’의 연결 지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먼저 종교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고, 종교관광은 종교적인 요소와 관광적인 요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종교학과 다르게 관광학계에서 종교관광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교과목 개설까지는 연계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한다.

이후 <종교와 관광>을 종교학계와 관광학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종교학계에서는 ‘종교’와 ‘관광’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반면에 관광학계에서는 ‘종교

관광'의 매력성과 만족도 그리고 활성화 방안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고 논한다. 정리하자면 종교학에서는 순수 학문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관광학계는 실용적 차원 즉 종교를 관광자원으로 그리고 이를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입체적으로 '종교학과 관광학 교육의 접점'을 이론적 차원과 실용적 차원으로 도식화를 하고 있다. '종교와 관광' 교과목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학과 종교학 교과목 내용의 접점을 찾아야 하고, 종교학의 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본 발표문에서는 '종교와 관광'과 '종교관광'이 혼용되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에, '종교와 관광'은 '종교학'의 시선으로 관광 현상을 분석하는 것(발표문에 의하면 '이론적 측면', '문화적 측면', '체험적 측면', '문화비평적 측면')에 방점이 있고, '종교관광'은 명상관광, 성지순례관광과 같이 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의 한 형태(특수목적관광)로 볼 수 있을 듯하다. 따라서 <종교와 관광>이라는 교과목명보다는 <종교관광콘텐츠학>이라는 용어에 '종교와 관광'과 '종교관광'을 녹여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더불어 발표자는 <종교와 관광> 교수자는 관광학과 종교학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논평자는 종교학과 관광학의 팀티칭을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본 발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지만, 항상 지역 종교관광 활성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종교 편향 논쟁일 것이다. 최근 신안군 '천사섬', '기적의 순례길 조성'을 불교계에서는 '기독교 성지화' 사업으로 이해하고 종교편향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 종교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종교와 관광> 교과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듯하다. 따라서 발표문에 제시한 "종교와 관광 학습 모듈"에 한국이든 세계이든 '종교문화사'에 대한 학습주제가 추가되어야 한다.
3. 불교계에서는 불교문화해설사, 원불교는 성지해설사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이 주목된다.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이 의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대학 교과목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종교학자가 공직자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학회 차원에서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견을 더하고 싶다.
4. 성결대 관광개발학과에 2015년까지 <종교성지순례관광>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은 <특수목적관광>으로 교과목이 변경되었다. 하여튼 종교관광에 대한 대중적·자치단체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계를 포함하여 관광학계에서는 <종교관광>이라는 독립적인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한 견해로는 '종교관광'은 국가적·지역적 차원 즉 정책적 차원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인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여행사 차원에서 상품화(현재

주요 여행사의 종교관련 상품은 해외 성지순례 중심의 관광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가 되고 있는지 또는 지역 종교관광상품화 개발에 관광학계 특히 관광업계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원고를 모집합니다.

- ▶ 한국종교학회 학술지 <종교연구>는 1년에 3번(4월 15일, 8월 15일, 12월 15일) 발행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입니다.
- ▶ 논문 투고 방법
 - <https://kars.jams.or.kr>
 - 회원가입 후 논문 투고
- ▶ 심사료 및 게재료
 - 논문심사료: 6만원
 - 게재료: 비전임 게재료 없음, 전임 10만원,
 -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의 경우는 30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2-503583 (예금주: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학회 2022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종교문화콘텐츠학의 모색>

일시 | 2022년 12월 17일(토)

장소 | 온라인 학술대회